**통화 녹음 김수진\_240419\_193851**

2024.05.02 목 오전 11:38 ・ 95분 18초
김용빈

참석자 1 00:00
갑자기 너무 자주 바뀌어서 약간 되게 솔직히 약간 좀 당황스럽긴 하거든.
근데 아까는 1억 말했던 거는 세무조정 금액이 끼지 않은 금액을 썼잖아.
왜냐면 내가 그거 전혀 생각도 못했던 거였었고 근데 지금은 세무조정 금액이라는 게 지금 새로 지금 변수가 생긴 거잖아.
완전히 당연히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말할 때는 나도 그랬지만은 세무 조정 금액 생인 거는 아무도 몰랐잖아.
지금 그때는 그냥 우리가 그냥 주는 대로 받자는 거였었잖아.
어 지금 새로운 변수가 생긴 거였었고 내가 전에 몰랐던 거였었고 근데 너무 자주 바뀌면 솔직히 나도 솔직히 힘든 게 나도 그 사람한테 약간 조금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너무 솔직히 힘든 왜냐면 어쨌든 나는 최대한 나는 너를 배려해 준다고 생각했었거든.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계속 그랬지만 지금

참석자 2 00:50
아니 근데 결국은 똑같잖아 이 조정 금액 포함된 거나 뭐나

참석자 1 00:54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나로서도 어쨌든 간에 너랑 같이 부담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가장 지금 제일 우선적인 건 다른 것보다 제일 우선적인 너랑 나랑 합의가 돼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면 제가 아무것도 지금 안 되는 거잖아.
어쨌든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게 계속 전부 다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약간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너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게 약간 너무 솔직히 진짜 나 좀 그래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는 해야 되는데 나도 지금 이게 세무조정 금액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겠고 지금 상황 자체 보니까 세금도 얼마 나올지 모르는데 나보고 갑자기 니가 나보고 1억을 다 내달라고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내란다. 그러면은 내가 이게 감당이 되겠냐고 이게 지금 내가 더군다나 아까는 아까는 맨 처음에는 난 1억까지가 맥시멈이었어.
원래는 그다음에 그냥

참석자 1 01:42
니가 다 내는 거었어. 근데 지금 보면 니가 하는 거 보면은 1억은 내가 무조건 내고 그다음 반반하자 이건 또 이건 또 새로운 제안이잖아 완전히 그건 또 또 다른 제안이잖아 이거는 아까 너무 틀리잖아 아까 니가 말한 대로 맨 처음에 했던 대로 하잔다라면은 내가 1억이 나는 맥시멈이었었다고 분명히 근데 갑자기 여기서 또 갑자기 그다음 넣는 거에 대해서는 반반 내자는 건 그래도 그건 또 어디서 또 어디서 그게 또 나온 거냐고 그게 갑자기 없던 게 나오니까 그건 니가 말한 게 너무 틀리잖아 아까랑은 또 너무 바뀌어 너무 너무 바뀌었지 계속

참석자 2 02:17
그 금액은 오빠만 알잖아 예를 들면 3억이고 어쩌고저쩌고 인터페이스고 오빠가 그거니까 대략 알 거 아니야 뭘 알아 금액이 대략 얼마가 나온지도 오빠가 들은 거 아니야

참석자 1 02:27
그 사람이 그냥 대략 말한 거야. 말 그대로 정말 나는 니가 더 잘 알 거 아니야 니가 직접 들었으니까 그 사람한테 넌 너 아까 4억을 말했잖아 갑자기 또 지금 4억 말한 건데 이 사람이 나보고 꼭꼭 물어봤어 대략 얼마냐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고 내가 왜 그래 당연히 나는 증여하니까 나 6억 아닌가 그 때문에 그 사람이 갑자기 8억을 말하는 거야.
어

참석자 2 02:47
아니 내가 사업성도 아까 가산세 뭐 이런 것까지 하면

참석자 1 02:51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얼마 나올지 모르는 가산세가 지금 얼마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 지금 그게 대략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지만은 정확히 계산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갑자기 네가 그렇게 말을 하면 나도 약간 되게 당황스럽긴 한데 정말 내가 지금 뭐라고 거기다 그 사람 지금 썼다 지웠다 쪘다 지었다 하니까 그 변호사 쪽에서도 나 보고서는 어

참석자 2 03:12
근데 왜 이렇게 그걸 급하게 쓰고 난리야 그럼

참석자 1 03:14
이 사람이 일요일날 안 한다잖아 일은 안 한다는 거야 지금 자기 일을

참석자 2 03:19
나는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원래 다음 주 목요일이라고 하더니

참석자 1 03:23
아니 아니 이 사람이

참석자 2 03:24
왜 이거를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

참석자 1 03:26
아니 아니야 이 사람이 나보고 아까 너랑 나랑 전화 통화하고 나서 그다음에 내가 그 사람한테 계속 물어봤거든.
어떻게 그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더니 아니 왜 내 마음에 들 아니야 내 마음에 들어

참석자 2 03:39
나는 이렇게 올가매니까 난리예요.

참석자 1 03:41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난 내 말 먼저 들어보라고

참석자 2 03:43
지랄이고 채웅이고 지랄이고 그거는 자기가 주말에 일 안 하는 거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이거 세무랑

참석자 1 03:49
아니 세무 말고 지금 이건 변호사 얘기고 내가 아까 전화받았던 상황은 뭐였었냐면은 나랑 그 사람

참석자 2 03:56
왜 지랄이야 니가 수수료 낸 거를 갖다가 나한테 지랄이야 아니 니가 그래야 변호사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꾸 울가매고 지랄이야

참석자 1 04:04
변호사 말고 지금 내가 내가 말하는 거는 변호사가 아니라

참석자 2 04:07
네가 자꾸 변호사랑 자꾸 세모랑 똑같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올가매고아니야 지금 아까 문자 메시지 보냈을 때는 목요일 했었잖아.
뭐라고? 아까 아침에 문자 보냈었는데 목요일까지 답변해달라고 그런 거잖아.
근데 왜 자꾸 이게 이제는 인감증명서 해가지고서는 이 지랄하는 거야 또 세용이에서 변호사가 온다는둥 네가 지금 울가매는 거 아니야 내가 니 모를 줄 알아 니 수법을 이거를 다 틈 타가지고 재무랑 막 변호랑 이렇게 섞어가지고서는 변호사 얘기는 있지도 않았어.
아침에 얘기할 때는 목요일이었지

참석자 1 04:40
너랑 나랑 합의서 합의서 만드는 거는 변호사잖아 그건 세무사가 하는 건 아니잖아.
그건

참석자 2 04:46
아니 근데 그거를 갖다가 왜 갑자기 목요일날까지 합의를 본다더니 이제는 부터 갑자기 그냥 변호사가 와서 썼다 지웠다.
왜 이지랄을 하는 거야 지금 왜 자꾸 네가 묶어가지고

참석자 1 04:55
잠깐만 조금만 지금 톤 다운로드 좀 하고 잠깐만

참석자 2 04:58
재웅인지 지랄인지 씨발 새끼 내가 알 게 뭐야 내가 그년이 뭐 출장을 가는지 그년 사정이 이거지 내가 그 나랑 무슨 상관이야 목요일까지 그 세무 그 합의만 보면 되는 거지 그 시발년 출정가는지 내가 알 게 뭐야 니 변호사지 내 변호사야 썼다 적었다.
뭐 하는 거는 내 맘이지 아침에는 목욕장 사비 보다더니 왜 이제는 사람을 갖다 올가매고 지랄인 거야 씨발

참석자 2 05:30
아주 그냥 오냐오냐 해주니까 여사를 먹으러 와가지고서는 무슨 그거 아니야 너 빨리 저거 인감 받아가지고서 나중에 올감해가지고서는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아 아까는 그냥 목요일이라고 그러더니 이제 아주 여세를 틈타 가지고서는 지랄 났어.
아주 그냥

참석자 1 05:50
수진아 제발 톤다운 좀 하자. 좀만 진정하자. 미안한데

참석자 2 05:53
아주 그냥 야근 야근 아침에 다음 주 목요일까지 무슨 합의를 보자더니만은 무슨 변호사가 출장을 간다고 그 지랄 났어.
아주 내가 알 경우야. 그냥 식장을 가든 말든 그 바쁘든 주말에 뭐 일을 안 하든 내 변호사야 그년이 무슨 뭐 세모랑 결과랑 무슨 상관이야 니가 올가매는 거지 변호랑 세무를 갖다가 그냥 합쳐가지고서는 뭉쳐가지고 지랄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인감받아가지고서 나중에 꼼짝도 못하게 하려고 야 내가 니 수법을 모를 줄 아냐 야 내가 지금 너 봐준 줄 알아.
내가 그 간편 그거 못 봐준 줄 알아. 아이고 박상호랑 해가지고서는 내가 그 새끼도 내가 사기로 내가 내가 지금 녹취도 있어 알아 내가 보낼 수 있어.
아주 그냥 그 치과의사 그거 협회에서 고용한 그거지 그 새끼 내가 내가 아주 그냥 기재부 차관한테 내가 그 새끼들 다 얘기했어 내가

참석자 2 06:47
다 날려버릴 수 있어. 내가 내 그 새끼 내가 손해보험 사정이 거기 중간에 브로커야 내가 협회장이랑 알아가지고 내가 그 새끼 명단까지 다 넘겼어.
내가 다 날려버렸어. 그 새끼 녹취까지 했어. 내가 나한테 협박했던 거.
내가 이지원 회장한테 내가 그 새끼한테 명단까지 넘겼어.
내가 이번에 들어왔으면 나는 그 새끼 아주 날려버렸어.
내가 녹취까지 있어가지고 내가 그 새끼 아주 손본 애가 거기 명단에서 내가 빼버릴 수 있어.
너 알지 너 걔네들 그거 날아갈 수 있는 거 라이센스

참석자 1 07:18
알아 알아 알아

참석자 2 07:21
치과의사 협회에서 그거 고용한 적인 거 내가 다 알아.
그거 내가 지금 야근야근 가만히 있으니까는 뭐 저기 한 건 줄 아는데 그 시가평 너나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 모를 줄 아냐 아이고 그냥 탁감 받아가지고 야 내가 그거 그 아저씨가 수원 세무서장 알아가지고서는 그거 심의위원회 통과시키려고 그랬었어 알아 내가 그랬고 그냥 좀 봐준 줄 알아 무슨 이제 와서 변호사 시발년이면 출장 간다고 꼴갑을 떨고 자빠졌네.
어이구 좀 양심적으로 해라. 응 어서 그 개꼴랑 그 씨발년인 때문에 어 니 애비가 안 오셔가지고 그랬어 야 오죽하면 오죽하면 야 야 니 애비 아주 꼬매 올까 봐 아주 두려워 지고 그냥 내 어깨에 얹어 있는 것 같아.
아주 그냥 야 장사 지낼 때 울더라. 나는 울음도 안 나와 하도 지긋지긋해가지고 넌 우리 누라 왜냐하면 지는 그거 유언 만들어놓고 좋았겠지 응 아이고

참석자 2 08:28
아주 그냥 내가 예전에 그냥 암 걸리고서는 그냥 지 모셔가라고 그럴까 봐 그냥 눈깔 하며 아주 그냥 눈가를 그때 그냥 확 파버렸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주 그냥 한이다 한 그리고 윤영아 그년 뭐 내가 뭐 찬중이를 버려 야 미친년야 시어머니가 지금 암 환자인데 오면서 그냥 빈손으로 오냐 점심 때 그러고서는 애 새끼는 여기 놀이터에서 그냥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않고 그럼 빨리 내려와서 자기 애 새끼를 데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 지 애 새끼를 버렸다고 야 엄마가 얼마나 짜증 내는 줄 알아 항암 치료받는 시어머니한테 오면서 맨날 빈손으로 오고 아유 창피하지도 않냐 그러고선 미친년 뭐 나한테 뭐라고 그래 뭐 지 엄마 장루를 갔는데 너는 뭐 장루를 갈았냐고 미친년야 나는 여기 살면서 몸에 똥내가 나 똥내가 지금도 엄마 얼마나 그랬으면 좀 미안해한 줄 알아 미안한 줄 아유 그런 내 편네 데고서는 좀 창피하지도 않냐 그러고서는 자기 시아버지 어

참석자 2 09:29
여기 무슨 뭐 장 저기 검사하러 가는데 뭐 오더니만은 얼마나 싫었겠어 근데 싫은 년을 왜 보내 한빛병원 여기 택시 타면 갈걸 굳이 왜 미안했나 보지 아유 아주 그냥 오면은 그 눈깔 하며 멍하게 앉아 있는 거 하며 유 돌대가리 년 이 아이고야 아버지도 참 답답했겠다.
이 내가 암 걸리니까 아주 그냥 그것들을 갖다가 같이 살 생각을 하니 한숨 사 나오지 하면서 나와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불쌍해서 데리고 살아서 불쌍해서 한숨 쉬고서는 맨날 그 먹을 타고 타령하고 오빠는 그리울 수 있어.
아빠가 나는 지긋지긋해 부모가 아니라 가끔 난 그 방도 너무 싫어 지금 내가 집 팔아서 얘가 안 나가가지고서 애가 이러고 있는 거지 아주 그게 엄마 방에서 그 똥똥내 나는 것 같고 좀 생각 좀 해봐.
하나는 결국은 나한테 보여준 게 뭐야 그 똥질한 거 아니야

참석자 2 10:30
동지 안 가고 장로 맨날 갈고 한 명은 뭐야 맨날 그냥 자는데 그냥 들어와가지고서 맨날 수진아 이러고 아주 그냥 둘이 그냥 귀신이 붙어 있는 것 같아.
나한테 오빠는 좋은 기억일 수 있지만 난 아주 지긋지긋해.
부모가 아니라 아주 나한테 그냥 기억들이 다 그거야.
한 명은 똥칠한 거 한 명은 나한테 그냥 아주 그냥 앵겨붙어가지고서 맨날 회사까지 챙피하도록 그냥 회사 그냥 맨날 그 접수대까지 찾아온 거 부모라는 게 무슨 좀 그리움이 있어야지 아 지긋지긋해 아주 그냥 그런 기억들 내가 지금 돈 때문에 그런 줄 알아.
아주 그냥 그 부모라는 게 아주 그냥 지긋지긋한 기억이야.
미안한 줄 알아. 그러면서 뭐 놀이터에 가서 지 자식을 버려 미친년 너 야 시어머니가 항암 치료하는데 그 맨날 빈손으로 오냐 점심 때 오면서 그리고 내가 홈플러스 갔다 왔더니 엄마가 짜증 내고 있더라.
배고프니까 그러면서 찬준이 얘는 놀이터로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때 그 우동이 터졌어요.

참석자 2 11:34
길 짓을 했는데 애가 안 내려와 애를 두 군데 갔지 그랬더니 뭐 자기 애 새끼를 버렸다고 미친년 아유 돌대가리 같은 년 유 대가리가 나쁘면은 센스라도 있든가 빈손으로 그 외 오는 거야.
그러면서 뭐 나한테 쌍년이 어쩌고 저쩌고 야 너 정보통신망법 5년이야 알아 그 기간이 기한이 나중에 엿 먹일 수 있는 기회는 엄청 많아.
나한테 보냈던 것들 내가 싸잡아가선 박상호 그 새끼는 내가 아주 그냥 이지원 회장한테 아주 그냥 손해보험 협회장한테 내가 아주 그냥 다 그냥 프로필이라고 다 넘겼지 잘라버리라고 걔는 얼마든지 라이센스 그냥 잘릴 수 있어.

참석자 1 12:19
이상호는 전혀 내가 그 얘기를 모르니까 너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참석자 2 12:23
네가 시켰겠지

참석자 1 12:24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전혀 내가 시킬 수가 없어.
그 사람한테는 완전히 나랑 모르는 사람

참석자 2 12:29
그 돈을 받아가고 돈을 받아가고 내가 그 새끼 아주 그냥 이번에 날려버리려고 했다가 내가 이지원 회장한테 나는 그냥 언제든지 날릴 수 있어.

참석자 1 12:39
이지원이 뭐야 근데

참석자 2 12:41
손해보험협회장

참석자 1 12:42
손해보험협회에서 그 사람이랑 세무사랑 관계가 있어.
그 사람이랑

참석자 2 12:48
걔 그게 그거잖아 그 손보 그거 그 차잖아 번들링하는 거 손해보험 회폐 그거도 하잖아.
세무

참석자 1 12:53
일 같이 한다고 그 사람이 그건 몰랐어. 그거 어떻게 하는

참석자 2 12:58
내가 아주 그냥 지기 프로필 해가지고 캡처 거 떠가지고 보내고 보니까 아주 그냥 기절을 하더라고.
내가 지 뭐 뒤추석 못 할 줄 알아 이게 다 걸리는 거야 알아 나한테 얘기했던 거랑 그러면서 뭘 야 그래 지금이나 그럼 지금 얘기하자.
아주 그냥 부모라는 게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다. 아주 내가 이 집을 안 팔려가지고 그냥 그 똥지했던 그 애미 하며 맨날 그냥 수시로 그냥 수지나 주지 하면서 아주 그냥 귀신 나올 것 같아.
알아. 내가 옷도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내 칼로 찢어버렸어.

참석자 1 13:29
누구 거 엄마 거를 아빠

참석자 2 13:30
아빠 거 너무 싫어서 알아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니 예편내라는 년은 나한테 뭐 쌍년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니가 시킨 거 아니야 그 유서 그거 저기 동의 받으려고

참석자 1 13:44
그건 내가 안 시켰어. 그거는 내가

참석자 2 13:45
그걸 누가 하냐 아주 그냥

참석자 1 13:47
아니야. 나는 너랑 사이가 좋아야 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절대로 난 그렇게 하지.

참석자 2 13:52
지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거든.

참석자 1 13:55
아무튼 나는 그냥 적절한 타이밍에 영화는 내가 시키거나 해서 그럴 애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나는 너랑 알겠지만 너랑 나랑 사이가 좋아

참석자 2 14:04
지 엄마 장루를 가는데 뭐 나보고 뭐 미친 년 너는 니 엄마 장루를 닦은 적이냐?
야 그럼 장루를 가는데 그럼 안 닦이냐

참석자 1 14:11
그거는 내가 전혀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서 몰랐어.
그건 내가 말할 수가 없어. 왜냐면 영어랑 나랑

참석자 2 14:17
그년도 나처럼 자기 엄마 똥내 좀 맡으라고 그래

참석자 1 14:20
아니 어머니 돌아가셨어. 얼마 전에

참석자 2 14:22
그러거나 말거나 엄마가 같이 놀아 우리 엄마가 아마 죽였을 거야.

참석자 1 14:26
그러니까 어

참석자 2 14:27
우리 엄마가 데리고 갔을 거야.

참석자 1 14:28
하여튼 돌아가셨어 지금 2주 전에 돌아가셨어

참석자 2 14:31
그러거나 말거나 나 그녀도 관심도 없고 그런 돌다리 같은 년 때문에 들어와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애미는 아주 그냥 암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 아주 그리고 야 지금 지금 얘기나 하자.
너 그 막판에 엄마 그거 아주 그냥 엄마 왜 그 호스피스고 뭐고 이거 보내는 걸 왜 아예 그냥 얘기도 안 해

참석자 1 14:53
뭐라고 어디 보내는 거

참석자 2 14:55
호스피스 보내는 거 그래 지금 얘기나 좀 하자.

참석자 1 14:57
엄마 아니에요 엄마 아빠 엄마 엄마는 요양병원에 계셨었잖아.
우리가

참석자 2 15:01
요양병원 옮기기 전에 그거 내가 옮기자고 그랬던 거잖아.

참석자 1 15:04
요양병원에

참석자 2 15:05
엄마 아파가지고 맨날 해롱해롱 있을 때

참석자 1 15:07
어 그때 그때 그 아줌마가 보지 않아서 아줌마가 우리한테

참석자 2 15:12
엄마 호주피스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왜 아무 얘기도 안 했냐고 나한테

참석자 1 15:17
호스피스 하려면 우선 성빈센트병원이나 카톨릭계로 먼저 가서 어머니를 글로 옮겨야 했었었거든.
근데 알겠지만은 너 오히려 그 병원 기흥에 있는 병원 옮겨가지고 엄마 상태도 나쁘지 않았었다고 호스피스는 환자가

참석자 2 15:32
가기 전에 엄마 여기 집에서 맨날 있었잖아. 방치돼서

참석자 1 15:35
그때는 약을 드시고 계셨었고 호스피스 병원은

참석자 2 15:38
야 니 부인이 니 미친년 니 예편내 년이 뭐랬는 줄 알아?
뭐래? 너 몇 번이나 해왔냐 여기 내가 엄마를 갖다가 맨날 방치하고 야 그럼 내가 회사 다니는 그러고 너 그러면 너는 내가 왜 회사 그만두고 있어?
회사에서 못 그만두고 있어? 왜 너한테 나중에 기여분 청구할까 봐 너 그랬던 거지

참석자 1 15:54
어 뭐를 비용

참석자 2 15:55
내가 회사 그만두고 내가 회사 그만두게 되면 회사 너 나한테 절대 그만두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너 왜 그랬던 거야?

참석자 1 16:00
삼성도 어렵게 들어갔잖아 그때 거기

참석자 2 16:02
아니 너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해 보면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것이 그 눈깔들 너 나한테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언 이것 때문에 내가 너 엄마가 했던 것들 다 적어놔 가지고 나중에 너를 갖다가 뭐 어떻게 했다 너 나 나왔다 그랬잖아 너는 처음부터 다 그랬던 거야.
그리고 내가 니 눈깔들 내가 아프리카 갔다 왔을 때 아빠 그때 다쳤을 때 내가 혹시라도 니가 모시고 살까 봐 넌 항상 그게 공포였던 거야.
니 눈깔들 보면 항상 그 살금살금 엄마가 맨날 친할머니 돌아가신 친할머니 그 눈깔이 무섭다고 그랬거든.
니 눈깔이 그래 칼로 파버리고 싶어 알아 칼로 확 찔러서 부지깽이로 찔러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비틀어버리고 싶어.
그래서 내가 여기 니 사진 있잖아 어렸을 때 칼로 다 찔렀어.
진짜 불도 태우고 내가 방화범 될까 봐 무섭지 니 부인년이랑 다 칼로 찔렀어.
너 보두 알지? 보두

참석자 2 17:02
죽이는 거 부두 알지 부두 알아 알아 아프리카 내가 니 외편나도 내가 그랬기 때문에 니 그 애미녀도 죽은 거야.
뭐 어차피 암 걸려서 돼지인 거야. 뭐 똑같지만 얼마나 잘 먹고 자는 그러면서 뭐 지 아들을 버려 미친년 그 상황을 갖다가 좀 생각을 해봐.
그 대가리에 총맞은 년이 11시 30분에 시어머니 그 항암 치료 오는데 애 새끼만 데리고 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엄마가 짜증이 나지 그 외 오는 거야.
급상판데기로 누가 엄마가 그 해로헤로 가는데 뭐가 손자가 뭐가 이뻐 그 애 새끼는 왜 오면은 여기서 놀이터에서 왜 올라가서 지랄을 떠는 거야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애 새끼들 지한테나 귀한 거지 그 귀하면 그럼 데리고 오든가 애를 두고 갔는데 뭐 애를 버려 미친 년이야 그 따위로 얘기하고 아가리를 찢어버려야지 씨발년을 어 내가 걔 청부 살인 청부 살인하는 거 내가 그것도 알아봤어 되겠어 알아

참석자 2 18:07
아주 그냥 자동차 해가지고 요즘 엄청 싸 노동자들 들어와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그 시발년 그거 하나가 내가 못 죽일 줄 알아 그 개 같은 년 그 정보통신망 그걸 떠나서 걔 죽이는 거 쉬워 너 2천만 원이면 사람 죽여 알아 지도사도 모르게 요즘 동남아 저기들 많아서 내가 청부살인줄 알아봤어.
알아

참석자 1 18:31
몰라 뭘 안 해봤어

참석자 2 18:33
그 녹음해라 뭐를 뭐를 아니

참석자 1 18:36
뭐를 아니 아니 지금 나 집에 들어왔어. 집에 지금 집에 들어 집에 들어왔어 방금 아파트 뭐지 여기 주차장 들어와 가지고 삐삐 소리 났어.
지금 방금 뭘 하는지 다

참석자 2 18:47
그럼 내가 아버지 안 모시고 살았으면은 그럼 아빠 어떡할래 너 그리고 내가 암 걸렸을 때 내가 아빠 모시고 오라고 그랬을 때 왜 내 대답 안 했어

참석자 1 18:56
뭐라고

참석자 2 18:57
내가 암 걸렸을 때 내가 수술하고 나와서 내가 어디 가야겠다고 아버지 모셔 오라고 그랬을 때 너 왜 그 대답 안 했어?
나 그때 스페인 출장 갔을 때 아주 가만히 있더라 며칠을 야 아주 그냥 공포에 떨었겠지.
뭘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내가 암 수술하고 나서는 내가 어디 요양원에 갈 테니까 아빠 지금 서 당분간 좀 데리고 가라.
아주 가만히 있더라. 둘이서 아주 그랬겠지 그러면서 야 가증스럽게 아빠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울어 참 나는 너무너무 싫었어.
아주 그냥 치 떨리게 아주 그냥 홀가분해 얼마나 싫었으면 그 애미 애비라는 게 그냥 그게 기억이 좋을 수 있는데 다 너희 부부 때문에 그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은 거야.
알아 한 명은 그냥 똥찌을 해가지고서는 그냥 방 안에 그냥 기억이 그냥 그렇고 한 명은 아주 그냥 내 어깨에 그냥 올감해가지고서는 그냥 회사까지 쫓아와가지고서는 맨날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내가 회사에

참석자 1 19:55
아버지가 와가지고 회사가 와서

참석자 2 19:57
너 모르냐? 너 맨날 너 내가 얘기 안 했어? 지금 모른 척하고 있어 맨날 회사 그냥 쫓아와가지고 나는 헬프데스크 가가지고 우리 딸 찾는

참석자 1 20:05
몇 번 찾아간 거는 알지

참석자 2 20:06
몇 번 찾을까? 뭘 먹을 찾아가 광화문에 있을 때 맨날 와서는 조계사 갔는데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그러면서 영아년이 뭐 진심으로 나보고 뭐 부모한테 한 적 있냐?
미친년 너도 대단하다. 그런 애는 나 같으면 정 떨어져서 못 데리고 살아.
야 너도 대단하다. 그럼 나보고 뭐 너는 뭐 돈을 받고 야 너 얘기 지금 얘기하는 거 내가 엄마한테 무슨 돈을 받았냐?
너 얘기해 봐. 내가 엄마한테 무슨 돈을 받아

참석자 1 20:32
받은 거 없어?

참석자 2 20:33
아니 그러니까 올케 언니 아니 영환이 현이 그랬어 뭐라고 네가 시킨 거지?
나는 너처럼 엄마한테 돈 받고 부모를 모시는 사람은 아니다.
니가 시킨 거지

참석자 1 20:45
나는 너랑 사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참석자 2 20:49
고영환 언이 어떻게 알아? 그런 거를 나는 너처럼 돈 받고 부모를 갖다가 모시지 않는다나 미친년 니가 안 나았으면 그런 얘기를 왜 해?
내가 돈 받았어 아니 그래서 내가 돈 받았냐고 너 그래서 내가 그래서 유리본 서정은 그거 아니야

참석자 1 21:03
그건 내가 그건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건 아니랑 알겠지만 나는 너 그리고 너랑 기본적으로 내가 너랑 기본적으로 사이가 좋아야 됐었기 때문에 너랑 사이가 나빠지는 말을 하지.

참석자 2 21:12
엄마가 그것도 너 아빠한테 얘기해서 너 결국은 너 그 돈은 5천만 원 가지고 갔잖아.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아빠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

참석자 1 21:20
5천만 원이 뭐지?

참석자 2 21:21
엄마가 돈 남긴 거 있잖아 현금으로 결국은 너 아빠가 너랑 나랑 둘이 나눠줬잖아.
달러 말고 현금 있었잖아 무슨 달러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보 생각 안 나 파리바게트 가가지고서는 내가 그 돈 내 돈이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너 거기서 아빠가 나눠줬잖아.
둘이 무슨 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달러는 다 딴 얘기인데 현금이었잖아.

참석자 1 21:40
내가 너한테 달러 숨기라고 그러지 않았어. 나 너한테 일부러 니가 나 달라고 그래서 니가 니가 말해서

참석자 2 21:45
같은 새끼를 소리하고 자빠졌네. 현금이었잖아 내가 그 얘기했더니만은 네가 나는 들은 얘기가 없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내가 그랬잖아.
너도 그걸 보냈잖아 너한테 초보 엄마 얘기했잖아.

참석자 1 21:55
아버지가 아버지가 다 자기 돈이라고 했었지 내가 이건 수진이가 자기 거라고 말한다고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럼 아빠가 돈인데 그럼 왜 너랑 다 다 내 거라고 그러면서 다 내 거라고 그러면서 아버

참석자 2 22:06
야 아빠는 그 돈이 있는지도 몰랐고 아빠는 그 돈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
니가 얘기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와가지고 나한테 화를 내더니만은 오빠랑 나누라고 그런 거지 아빠는 그 돈의 존재조차도 몰랐어.

참석자 1 22:17
수진아 나 심지어 난 이거를 작은엄마한테도 물어봤다고 수진이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혹시나

참석자 2 22:25
문자를 아빠 돌아가셨을 때 뭐라 하냐면 철우 엄마 얘기까지 했었어.
그게 철우 엄마야 네가 그 돈을 몰랐으면 철우 엄마 얘기를 왜 했어?
니가 그때도 그건 지금도 남아있어

참석자 1 22:35
말했던 건 뭐냐면은 얘기했던 게 있는데

참석자 2 22:38
내가 너 니 문자 봐

참석자 1 22:40
응 응

참석자 2 22:41
거기 보면 철우 엄마 얘기 있잖아. 철우 엄마 얘기가 그 돈 얘기

참석자 1 22:44
서우 엄마가 아니라 엄마 친구들 이야기 니가 나한테 어떻게 말했냐면은 빠바에서 만났을 때 엄마 친구들이 이렇게 이렇게 말해 평상시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래서 난 그거를 그 철마 내가 철우 엄마냐 아니면 정우 엄마 쪽에 내가 전화 걸지 못했었고 오히려 내가 이거를 작은엄마한테 물어봤다고 심지어는 만약에 내가 너한테

참석자 2 23:03
작은엄마가 뭐라 그랬는데

참석자 1 23:05
작은 엄마가 평상시에 그런 말 했다는 거야. 나보고서는 근데 자기는 중간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내가 아빠한테 말했어.
내 그걸 내가 아빠 아빠 지금 작은 엄마도 이렇게 말하고 수진이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작은 엄마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때에 아버지는 전부 다 나한테 화를 내면서 전부 다 내 돈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돈 엄마 갖고 있던 돈 나 보고서는 전부 다 목록을 적어서 작성해 달라는 거야.
전부 다 그러면서

참석자 2 23:36
모르겠고 그건 모르겠고 니가 어 니가 나한테 문자 메시지 보냈을 때 아빠 돌아가시기 직전에 너 알지?
니가 그 아빠 그 통장을 갖다가 관리하는 걸로 후견인으로

참석자 1 23:47
맞아 맞아 기억나?

참석자 2 23:49
그때 내가 동의 안 했지 너 그때

참석자 1 23:51
맞아 근데 너도 그때 약간 나한테 오해했던 거 있었잖아.
분명히 니가 오해했던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아버지 건물을 팔 것이다라고 넌 오해했잖아.

참석자 2 23:57
근데 너는 이미 그걸 갖다가 공증을 받았어. 난 그걸 알아

참석자 1 24:01
공정위 모소의

참석자 2 24:02
니가 이미 공증을 받은 걸 난 알아

참석자 1 24:04
변호사한테 내가 그거 공증 받았다고 아니야 안 받았어 그거는 변호사 없었어.
그럼 내가 당연히 변호사 선임했겠지만은

참석자 2 24:11
어쨌든 간에 공증이든 그게 유언이든 간

참석자 1 24:13
아니야. 공증을 받은 적이 없었어. 그거는 절대 그건 진행시키지 않았다고

참석자 2 24:17
유언을 받았거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유언을 받았던 것도 알고 있고 건물을 팔고 이러지도 유언이 있었고 너는 유언도 나중에 살짝 간을 보다가 나한테 보낸 거잖아.
너가 맞잖아 지금 와서 왜 왜 그런 거짓말을 해? 알잖아 너 유언을 직접 안 보내고 너 나중에 살살 감보다가 계속해서 나가 한 다음에 그 문자 메시지 남겨서 이번에도 보니까는 저기해서 그걸 증거로 쓸려고 넌 항상 그런 식으로 수집을 했던 거잖아.

참석자 1 24:46
안 본 게 아니라 너한테 어쨌든 간에 유언 내용을 너한테 영상 같은 거를 네가 어쨌든 네가 알아야 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너랑 나랑

참석자 2 24:53
그럼 왜 나중에 했어 고지를 왜 나중에 했어?

참석자 1 24:56
왜냐면은 어쨌든 시간이 분명 있잖아. 그전에는 너랑 나랑

참석자 2 24:59
그전에 나의 자백을 받아가지고서는 그걸 한 다음에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 무슨 자백을 너가 나한테 계속 보냈잖아.
그거 아빠한테 그 돈 받아가고서는 그거 뭐 있으면 그걸

참석자 1 25:09
아니야 아니야 그거랑 아무 상관없지

참석자 2 25:10
아니 뭐 그게 왜 상관없어 그래서 결국 나한테 문자 메시지 아니까는 그건 각서를 하고 각설하고 니가 그거 보낸 거 봐봐.
너 철우 엄마만 해도 내가 알아봤을 때는 그게 아닌데 니가 혼자 말을 만들었다.
너 너 한번 찾아봐 니가 지금 한번 찾아보라고 그 문자 영화 그 욕화했던 그 문자를 찾아보라고 철 엄마 그 얘기 네가 찾아봐 지금 와서 딴 얘기하지 말고 쌍년이랑 둘이 해가지고 서는 작당

참석자 1 25:39
아니야 아니야 나랑 영아랑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
영아랑

참석자 2 25:43
청원 청부살인으로 알아

참석자 1 25:45
영아랑 나랑 내가 영아한테는 감정적으로 너랑 나랑 사이 좋으면은 나쁠 일 하나도 없는 걸 내가 뻔히 알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지금도 영아가 만약에 니 이야기하면 난 중간에 딱 자른다고

참석자 2 25:58
아니 그거는 듣기도 싫어. 내가 그걸 자르든 같이 욕을 하든 나는 그 그거 상관도 없고 그 쌍년 어 정보통신망 빵 5본이고 야 니 아들 새끼 결혼할 때 야 내 볼만하게 내게 해줄 거야 그전에 그년을 죽이든지

참석자 1 26:14
그래도 찬중이 너 보고 싶대. 찬이는 그래도 너

참석자 2 26:17
됐어요 니 애 새끼도 야 니 그 애새끼도 야 참 야 니 예편네 옛날에 내가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야 남의 집 그 서 오빠가 집들이 하는데 그 빈손으로 오는 게 말이 되냐 아유 부창부수지 또 작은엄마는 또 그 와중에 또 영아한테 또 그 음식이나 얻어먹겠다고 또 아이 나랑 영화랑 또 여전히 또 감 보고 또 영화한테 들러붙어가지고 그 음식 싸주니까 그런 거 와중에 또 좋다고 또 이제 이러고 있는 거지 또 양쪽으로 볼 만한 것들이지.
야 내가 너의 그 비열함 야 내가 너 하나 얘기해 줄까 창피하지만 야 내가 니 동창 우연히 알게 됐는데 너도 니 동창한테 그 돈 때문에 그랬다매 상봉인지 누군지 잔인하게 뭐 했다며 내가 왜 그 소리까지 들어야 되냐 창피하게

참석자 1 27:10
잔인한 게 뭐야

참석자 2 27:11
모르지 나는 뭘 어떻게 했는지 상봉이한테 니 친구한테

참석자 1 27:15
상봉이 상봉이랑 나랑은 만나기 전에 동생이랑

참석자 2 27:19
차인가 뭔가 했다며 뭐라고 차인가 뭔가 했다며 차이 뭐야 돈을 빌려준 다음에 뭐 어떻게 했다며 나는 그 얘기도 모르지만 상봉이 상봉인지 누군지 친구한테 돈 빌려줘서는

참석자 1 27:29
상봉이 나랑 동굴이 없었어. 상봉이 나한테 돈 꿔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딱 거절했다고 친구 잃고 싶지 않다고 말

참석자 2 27:36
그거는 모르지만 뭐 어쨌든 간에 너는 사람들한테 그 동창들한테 그런 이미지더라고.
내가 너무너무 듣기 싫어서

참석자 1 27:42
아니야. 상봉이랑 나랑 동굴이 없어

참석자 2 27:44
돈거래 없지만 나는 몰라 너라는 인간 자체가 너라는 인간 자체가 사람들한테 그런 비열한 거야 알아 그거나 좀 알고 살아 비열한 걸로 이미 그래서 얘가 너무너무 기분 나빴어.
어떻게 나 형제인데 어떻게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내가 보니까 그런 얘기가 컨텍스트가 왜 나왔는지 알겠어.
이제 얼마나 그 평소에 그 얌채같이 굴었으면 친구들이 모이고 가서 그런 얘기를 했겠냐고 그 동창들 겉으로는 또 좋은 척했겠지 어이구 이 내가 아주 그냥 부모라는 게 아주 그냥 너희 같은 편 그 쌍년이랑 너 같은 그 쌍놈 새끼만 없었으면 내가 부모에 대한 기억이 어느 정도 좋았을 텐데 아주 그냥 애미녀는 그냥 똥질을 하다가 그냥 죽어가지고서 나한테 아주 그냥 지긋지긋한 그냥 화장실도 그냥 내가 아주 그냥 이번에 싹 다 그냥 갈아엎었어.
그 애비라는 새끼는 그냥 아주 그냥 회사까지 쫓아다니고서 아주

참석자 2 28:42
귀신처럼 붙어 있는 것 같아. 지긋지긋해 부모랑 다 왜 그런 줄 알아?
너희 같은 부모 너희 부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서 돌아가셨으니까 넌 울더라 어깨를 을적이면서 코메디더라.
나는 아주 그냥 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주 지긋지긋해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그 옷도 내가 칼로 찔러버렸잖아.
그냥 아주 네가 사준 옷 기터리도 안 날리더라. 그냥 언니 지긋지긋해 얼마나 싫었으면 파 그거 누가 가지 하여튼 하나같이 아주 그냥 괴롭고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고 아주 뭔가 부모라면 감사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 것도 너희 부부들 때문에 증오밖에 안 남아 알아 증오밖에 야 이런 것도 참 골때려 올케가 신우를 갖다 청부 살인할 생각까지 하고 얼마나 미우면 그 왜 그랬겠어 미친년 아주 자기가 잘못한 걸 갖다가 저기하니까 뭐 맨날 뭐 쌍년이 어쩌고 저쩌고 뭐 꿈에도 뭐 어쩌고 어쩌고 니가 니 엄마 무슨 뭐 장누나 갈았냐고 미친년 야

참석자 1 29:53
안 그러면 내가

참석자 2 29:54
가 동네에 쩔어서 살았어 내가 알아

참석자 1 29:57
그러니까 나랑 영화랑 통화를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나는 너 안 그런 거 분명히 알잖아.

참석자 2 30:05
안 그런 걸 안 그런 걸로 아는데 그 대가리에서 그게 어떻게 나오냐

참석자 1 30:09
나는 어쨌든 알기 때문에 내가 영아랑

참석자 2 30:12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와 영아가 영아가 걔가 그럴 어떻게 서 나오냐 돈 받고 날 모셨다고 니가

참석자 1 30:16
만약에 영아랑 이야기를 했다더라면 걔가 그런 얘기 못 했겠지만 난 영화랑 너 영화에 일부러 내가 너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하지를 않는다고 일부러 아니

참석자 2 30:26
그 영아가 나한테 돈 받고 모셨다는 얘기를 왜 해? 뭐라고 그러더니 나보고 돈 받고 모셨다는 얘기를 내가 보내줘 네가 시킨 거 아니야 돈 받고 모셨다고 나는 너처럼 부모를 돈 받고 모시지 않는다고 미친년 지가 안 모시니까 그렇지

참석자 1 30:40
나는 진짜

참석자 2 30:42
그러니까 지금도 모른 척하는 거 너 그것도 그거 아니야 니가 그 증여받은 거 그거 문자 메시지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야 영업을 어떻게 하냐

참석자 1 30:50
영아랑 아예 그런

참석자 2 30:51
니가 평소에 그런 얘기를 니가 그랬잖아 너 유언 했을 때 아빠가 다시 짓게 했다고 아빠가 그 유언에서 무슨 얘기했냐 했더니만은 그 돈을 영아한테 주겠다고 나는 그 영화한테 주지 왜 그랬냐

참석자 1 31:02
그게 무슨 소리야 영아랑 영아

참석자 2 31:04
내가 그거 유언 니가 나한테 문자 보낸 거 내가 캡처 받아놨어.

참석자 1 31:08
영아 얘기는 적은 영아 얘기 나올 수가 없어

참석자 2 31:11
니가 다시 찍 니가 다시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뭐를 이거 다시 찍었다고 그랬잖아 내가 처음에는 아니 내가 변호사 다 보여줬는데

참석자 1 31:19
명상 다시 찍었다 말한 적 없었어. 한 번

참석자 2 31:21
아니 문자로 메시지로 니가 그랬는데 니가 그랬는데 처음에 그거 유언 다시 찍은 거라고 처음에는 그 돈을 갖다가 아니 다 여기 있어

참석자 1 31:29
아니 아니야

참석자 2 31:30
아니 다 여기 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다 여기 있어.

참석자 1 31:33
뒷장 다 찍은 게 아니라

참석자 2 31:35
그 돈을 영화 주

참석자 1 31:36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고 다른

참석자 2 31:37
야 그 돈을 좀 영화 좀 주지 그랬냐

참석자 1 31:40
명아는 그 이야기 아예 나올 수가 없다니

참석자 2 31:42
아니 아버지가 그랬어. 이 돈을 나를 모시는 사람을 주겠다고

참석자 1 31:45
절대 안 절대

참석자 2 31:46
아니 니가 나한테 그랬어. 내가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야 내가 여기 녹음도 해놨는데 그래서 내가 변호사한테 이걸 들려줬는데 이게 나중에 유언을 갖다가 다시 아니 여기 있는데 변호사도 그거 다 들었어.
이게 이 요원이 이걸 갖다 다시 인위적으로 찍게 된 거에 대한 근거가 되느냐 내가 검토까지 받았는데

참석자 1 32:05
인위적은 절대 아니라니까

참석자 2 32:07
아니까 그렇다니까. 아니 이적이나 많아. 이 돈을 니가 가서 다시 씻겠다고 그랬어.
아니 무슨 소리야? 야 뭘 아니야 아니야 여기 지금 녹음이 있어.
내 들려줘. 변호사가 검토도 했어. 이게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유언을 다시 시켰기 때문에 이 의원이 반박의 근거가 되는지 나 그거까지 검토했어.
야 그거 좀 영화 좀 주지 그랬냐 그 쌍년이 좀 모시고서는 나는 나중에 다른 돈이나 해가지고 아니 영화 얘기가 없잖아.
나는 이 돈을 다시 찍었으니까. 아니 그 돈 좀 영화 좀 주지 그랬어.

참석자 1 32:39
영화 이야기는 없고 영화 이야기는 없었고 내가 그냥 확실히 말할게.
영화 얘기는 없었고

참석자 2 32:46
엄마한테 돈 좀 주고 좀 모시라고 그러지. 나는 그럼 다른 데 돈을 갖다가 받게.

참석자 1 32:50
수아 내가 말할게 내가 지금 말할 테니까 그냥 그냥 듣고 있어.
영화 이야기는 절대 없었고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나보고서는 뭐라 말했냐면은 혹시나 네가 수진이가 결혼하게 되면이라 말했다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결혼하는 거는 집안의 경사인데 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조건을 왜 다시냐

참석자 2 33:12
여기 대해서 오빠가 쥐가 안 좋은데 그런 대화가 되냐

참석자 1 33:17
아버지가 부르는 걸 내가 쓴 거라니까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부르는 거를 내가 뒤에 쓰길래 내가 내가 먼저 아버지한테 보여드린 게 있었고 맨 처음에 말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다 내가 타이핑까지 끝났는데 아버지 나보고서는 추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면서 내가 그 뒷장에다가 수리를 받아 적은 게 있었어.
만약에 수진이랑 결혼하면 뭐라 뭐라고 그러길래 아버지 이거 수진이 결혼한 다음에 이거를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 만약에 아버지가 무슨 일 있으면 아버지가 혼자서 할 일이지 이거는 유언장이나 이렇게 남길 내용이 아니라고 말을 했다고 내가

참석자 2 33:57
근데 너 왜 나한테 그 얘기

참석자 1 33:58
수진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나 아예 영화 얘기가 참 영화 이야기가 아예 우리는

참석자 2 34:02
그러니까 너 왜 나한테 그 얘기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니가 기분 나쁠까 봐 내가 그나마 편집을 한 거라고

참석자 1 34:09
집이 아니라 내가 내가 편집이 아니라 그 뒷장을 아버지한테 내가 손 수기를 받아 적으면서 아버지를 내가 설득시켰다고 아버지 이 뒤에 있는 장 이거는 이런 이런 일 때문에 유언장에 담길 일 같지는 않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했더니만 아버지가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걸 나중에 보여주면 수진이가 나중에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영상에 담기지 않는 게 좋겠어요라고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권유를 한 거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 아버지가 했던 거였.

참석자 2 34:42
유언 보낼 때 너 뭐라 그랬는 줄 알아? 거기 변호사가 보더니 참 아주 궁금하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분 나쁠 내용들은 최대한 저기했으니까 너를 배려한 건 줄 알라고.
너 한번 봐봐 나한테 보낸 거

참석자 1 34:55
그게 그 내용이라고 내가 말했다고 아버지한테 그건 내가 계약

참석자 2 34:58
뭐라고 그랬냐면은 뭔가 오빠가 조작한 것 같다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 문장을 보면 조작한 것 같다.

참석자 1 35:04
조작은 아니야 그건 내가 아버지한테 분명히 내가

참석자 2 35:07
상대방이 보면은 너를 위해서 뭔가 내가 아닌 걸 갖다가 다시 찍겠다고 니가 그렇게 해서 거기다 넣어

참석자 1 35:12
다 찍은 게 아니라 아빠한테 내가 제안을 했었고 영상은 단 한 번 찍었었고

참석자 2 35:16
한번 봐 거기 내유 네가 한번 봐 거기에 니가 뭐라고 보냈는지

참석자 1 35:20
확실하게 내가 기억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잖아. 내가

참석자 2 35:24
니가 거기 나한테 카톡을 보낸 걸 보라니까 다 남아 있으니까 나한테 그 얘기를 하지 말고 네가 나한테 카톡을 보낸 걸 봐.
이게 상대방이 누군가가 변호사가 봤을 때 의심스럽지 않은 정황인가

참석자 1 35:35
의심이 아니라 어쨌든 그냥 내가 당연히 내가 너를 위해 배려가 아니라 나는 당연히 나중에 욕심이 너한테 보여.
너를 위해서라고 아버지가 너에 대한 기억 자체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아버지한테 내가 권유한 거라고 이렇게

참석자 2 35:52
야 그리고 니 그럼 시발년 그 개년은 나는 너처럼 돈 받고 부모를 갖다 모시지 않는다.
이 얘기가 왜 나와

참석자 1 36:00
그건 난 모르겠어.

참석자 2 36:02
그게 그게 언제 나온 줄 알아 니가 나한테 사진 찍은 거 금이랑 현금 찍은 거 보여주던 그때 그날이야.
그날 둘이 동시에 지랄하는 날, 둘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지랄하는 날 그날이야.
그 얘기가 왜 나왔겠어 니가 얘기했을 거 아니야

참석자 1 36:19
그거는 절대로 아니었어.

참석자 2 36:20
그건 절대 아니라니 이상 남의 새끼야 두 부부 노년이 아주 그냥 합세를 해가지고 그 개년 아주 그냥 2천만 원이면 아주 청부 살인을 아주 되잊어버리고 할 수 있어.
시발년 아주 내가 강간도 아주 시켜버려도 야 천만 원이면 끝나 그 개년 아주 그냥 대치동 지나다가지고 차 살짝 저기하는 것처럼 해가지고서 아주 그냥 암매장시켜버릴 수 있어.
그 개 시발년은

참석자 1 36:47
신호 정말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쳤어 미안해 진짜로 미안하고

참석자 2 36:50
정보통신망법 내가 그것도 다 모아놨고 내가 미안하다고 보냈으면은 그걸로 해야지 뭐 이 씨발년아 뭐 하면서 나한테 뭐 이 개같은 년 아주 내가 아주 그냥 강간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고 내가 시켜버릴까 봐 아주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죽여버려.

참석자 1 37:12
진정 좀 하자. 약간 언어랑 좀 약간 진정 좀 하자. 미안하긴 한데

참석자 2 37:15
진정하게 됐어. 니 부인이 나한테 보낸 그거 한번 봐봐.

참석자 1 37:19
나는 근데 영화 그 메시지 같은 거 나는 전혀 보지 않거든.
영화랑 나랑 그 정도로 서로 보여주고

참석자 2 37:25
그 쌍년이 다 그런 년이야. 등신 같은 년 아유 대가리가 나쁘면 센스라도 있든가 목 같은 년이 이제 와서는 아이 주제 넘게 그년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이만영 이모양 이꼴 된 거야 알아 아주 그냥 부모한테 아주 그냥 충분히 감사할 만한 환경인데도 아주 예민이는 아주 그냥 똥질로 그냥 아주 그냥 내 인생을 갖다가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만들고 그냥 애비라는 새끼 아주그냥 들러붙어가지고선 맨날 수시나 수시야 지금도 들려 그래도 넘기더라.
너 아주 야 뭐 장례식장에서 아버지 그거 관저기 할 때 너 이렇게 흐느끼더라.
그것도 슬픈가 보지 아주 고맙나 보지. 유언 남기고서 다 이렇게 나한테 줘서 왜 모시고 못 살아서 미안한가 보지.
아유 나는 아주 후련했어. 난 할 만큼 했거든. 아주 그냥 그러면서 뭐 뭘 알아 뭘 알아 돈 받고 못 쳤다고 그러면서 내가 돈 받았어 무슨 돈을 받아

참석자 1 38:26
아니야 그렇지 않다니까 수진아

참석자 2 38:28
근데 니 예편 이더니 그 얘기를 왜 해? 나한테 보냈다는 얘기가 그거잖아 너 나한테 계속 금이랑 이런 거 협박하면서 무슨 뭐 여기 통장에서 돈 빼간 거는 다 민사 소송이네 어쩌고 저쩌네 너 그때 그랬잖아 나 협박하면서

참석자 1 38:41
미안해 진짜 그건 정말 내가 미안해. 내가 그때 약간 조금

참석자 2 38:45
그때가 그 주공이 뭐야 맨날 그렇게 보냈는데 나한테 그거 보내려고 나한테 받으려고 그러면서 유리분 소송할까 봐.
미친놈 새끼 야 너 지금도 내 눈치 보는 게 그거잖아.
내가 지금이라도 마음 바꾸고서는 너 그냥 확 역공시켜버릴까 봐.
야 내가 니 주변에 있는 이 새끼들 다 조사해가지고서는 다 세무사부터 다 날려버릴 수 있어 알아.
아유 참 박상호 이 새끼도 내가 아주 다 걸어놨어. 내가 아주 라이센스 해가지고서는 유

참석자 1 39:15
박상호 어쨌든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석자 2 39:18
뭘 학생이 상관없어 너네 그 치과의사 저기잖아 그 대행하는 저기잖아 세무사

참석자 1 39:24
그 사람은 나랑 대행하지는 않아. 그 사람 나 대행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야.
그 사람은 내가

참석자 2 39:29
이제 와서는 그 눈치 보고서는 아이고 야 너는 나한테 그 돈에 대해서 미안한 게 아니라 아주 그 애미애비년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기억을 준 게 너희 부부야.
지긋지긋하게 아주 그냥 부모라 그러면은 아주 그냥 책 떨려 부모는 좀 그리워할 만한 이런 게 요소가 있어야지 그려할 만한 요소가 고마울 게 얼마나 많겠어.
그래도 미국도 유학 보내고 근데 너희 부부들 때문에 지긋지긋해 증오스러워 엄마 아빠가 그래 내가 오죽하면 내가 칼로 찔렀겠어

참석자 1 40:03
나 때문에

참석자 2 40:05
그래 너 때문에

참석자 1 40:06
영화는 뭐

참석자 2 40:07
너랑 영화랑 내가 너희 가족들 사진들 내가 그래서 칼로 다 찔렀잖아.
불로 다 데우고 앨범들

참석자 1 40:15
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그럼 있어. 그럼 그렇게 최근에 너랑 약간 언쟁 있는 거 나도 그건 이해하는데 솔직히 나는 그렇게 막

참석자 2 40:25
넌 나한테 미안하지 넌 나한테 미안하지

참석자 1 40:28
난 어쨌든 난 지금 너한테 그 정도는 아니었었거든.
솔직히 기분 자체가

참석자 2 40:32
너 맨날 와서 내 눈치 봤잖아. 내가 나중에 어떻게 나올까?
너 맨날 그랬잖아 그 눈깔 그게 너무 싫어

참석자 1 40:41
눈깔이라고 그러지 말자. 그냥 눈 눈이 눈빛이라고 그래

참석자 2 40:45
그 할머니 할머니랑 똑같은 그 눈깔 살살하면 이렇게 살피는 거.
특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아주 증오스러워 아프리카 갔을 때도 왔다 갔을 때 니 친구

참석자 1 40:54
아까 만났을 때도 그랬어. 아침에도

참석자 2 40:57
지금은 모르지. 내가 니 눈깔을 안 보니까 나 여기 맨날 오면은 맨날 수신이 하면서 그건 너무 싫어.
지금 생각해 보면 맞잖아. 왜 야 니 눈깔은 아까도 보면은 항상 생각하는 척하면서 본질을 흐려 그 대가리 돌리는 거 너 어렸을 때부터 그랬잖아.
돈을 갖다가 너 100원 하고 천 원 있으면은 이게 더 좋은 거라고 10개가 아니라 몇 개 주면서 살짝 그랬잖아.
내가 맨날 말려들어 가고 거기서 꼬소해하고 그 얌채 같은

참석자 1 41:31
니가 말로 들어라 게 니가 나 때문에 손해 보고 있었어.
여태까지 그러면은 어떤 뭘 해서

참석자 2 41:34
아니 지금야 그러면 내가 부모 모시고 똥질하고 맨날 그냥 그 애비라는 새끼는 맨날 그냥 내 아주 등짝 그냥 들러붙어 있고서는 야 내가 유리분 이거 받는 게 내가 반반도 못 받는 게 이게 이게 부당한 게 아니야.
니가 당연한 거야 니가 가져가는 게 니가 뭐 했는데 그게 당연한 거야.
21세기 너 같은 새끼가 아니 니가 가져가는 거 너 돈 욕심 많은 거 알아 엄마도 그랬어 전보면은 니가 아빠의 욕심 욕심이 엄청나다고 그래서 이 집안 조심해야 된다고 그 얘기도 했어.
그래서 딸을 빨리 시집 보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었어.
알아 엄마가 그 참 용한 사람이지 뭐냐 정훈이 엄마가 소개시켰던 사람인데 몰랐어.
그래서 엄마가 엄청난 시집 보내려고 그런 거야. 이 집안 나중에 싸움 나겠다고 안 하지 정훈이 엄마가 그 대통령 무슨 보는 사람 보고 나와서 이 집안은 큰일 나겠다고 나중에 이렇게 됐잖아.
그 왜 그러겠어 단순히 돈은 아니야

참석자 2 42:35
돈의 결과인 거야. 니 그 부인 그 개시작년 같은 것들이 하나 들어가고 너 같은 얌채 새끼 때문에 아주 그냥 이 애미애비연에 대해서 알았더니 안 좋은 기억이 아니야.
내가 또 맨날 칼로 찔렀잖아. 야 야 야 오죽하면 아래층에서 올라왔어.
맨날 여기 위에서 쿵쿵쿵 시끄럽다고 너 그러면서 우리 너 알아 여기 테레비랑 우리 가구들 다 나오고서는 다 쓰러져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맨날 발로 차 특히 아빠가 맨날 그 약 들고 다니던 그 서랍 내가 맨날 발로 차

참석자 1 43:12
그 정도인지 솔직히 몰랐어. 미안해. 진짜로 근데 어쨌든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
내가

참석자 2 43:17
아주 그냥 그럴 짓으로 아주 그냥 이 애비라는 새끼가 아주 그냥 너무 싫어가지고 아주 그냥 칼로 그냥 아빠가 현판 걸던 거 알지?
김치가 의원

참석자 1 43:26
응 나도 사진

참석자 2 43:28
태우고 칼로 엄청 찔러냈어. 알아. 참 미안하지만 난 미안한 것도 없어.
지금은 남아있지도 않아. 얼마나 싫으면 내가 정말 창피한 게 그거야.
밑에 층에서 올라올 정도로 내가 분노가 너무 심하구나.
그리고 예민이와 맨날 누워 있었던 그 침대 그 침대.
내가 그냥 의자를 갖다가 벽에다가 그냥 확 집어던지고 서 의자가 산삼 부서졌잖아.
얼마나 싫었으면 불쌍하지 어 불쌍하지 암 걸려가지고 불쌍하지 거기서 맨날 그 해롱해롱하고 결과적으로는 니 예편년년이 뭐 돈 받고 보시고 엄마를 방치했다고 뭘 방치를 아니 아니야가 아니고 니 애편매년난이 보낸 문자를 봐.
쌍노무 새끼야 이런 개쌍노무 새끼 내가 니 눈깔 아유 너는 그 눈깔 조심해 너 얼마나 저기하면은 내가 아빠 그거 찔러댈 때 니 눈깔까지 아주 그냥 확 그냥 고갱이로 해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알차한 걸 만들어버리고 싶더라.
얼마나 증오스러우면 너에 대한 증오가 그거야. 알아 니 팬내년이랑 나한테 뭐 민사소송을 걸어서 뭐를 돈을 빼가고

참석자 1 44:42
기분 너무 이상했었어. 저 진짜 그건 미안해. 그거는 내가 지금

참석자 2 44:45
그때 항상 그냥 그거야. 자백 받아가지고서 나중에 소송받을까 봐.
너는 그래서 너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아까 뭐 너가 자꾸 바꿔서 뭐 어쩌고 너 씨발 새끼야 내가 너를 모를 줄 아냐 뭐 하면서 이 여사를 몰아가지고서는 아까는 목요일이라고 그러더니 야금야금 하더니 와서 인간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세웅의 변호사가 어디 가고 씨발년이 하건 이건 뭐 하건 무슨 상관이야 이 개새끼야 니 예편내년인이랑 조심하라고 그래 내 증오가 얼마나 저기하면 아주 그냥 강간시켜버려가지고 나니에 대치동에 은마 아파트 사거리에 걸어놓고 싶어 하냐 빨리 밖 해가지고 그 정도야.
알어. 분노가

참석자 1 45:24
난 이 정도인 줄 몰랐어. 니가

참석자 2 45:26
너 그 정도야 그 정도야 미친년 아유 너도 똑같고 아유 아주 그냥 청부살인으로 아주 그냥 아유 아주 그냥 죽어도 아주 센통이다.
그리고 내 저주는 니 처갓집이고 다 퍼질 거야 그 정도인 줄 알아 알았어.
내 분노가 얼마나 싫었으면 맨날 칼로 너랑 저기 사진 해가지고서는 찔러대가지고서는 밑에 집에서 시끄럽다고 올라올 정도야.
이 집은 이제 나가지도 못하니까 어 그냥 그 화장실 하면은 그

참석자 1 46:03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회사는 왜 그만둔 거야?

참석자 2 46:07
뭘 왜 그만둬? 잘리니까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만두는 거지.
야 그리고 니 부인이 그 씨발년이 나한테 맨날 뭐라 그러냐면 우리 회사한테 뭐 투서를 넣는다고 뭘 투서를 넣어

참석자 1 46:18
근데 KT는 그나마 좀 안정적 아닌가? 나이 니가 어리잖아 아직까지는 그 정도 아니잖아.

참석자 2 46:23
이 미친 새끼야 너 맨날 나한테 뭐라 그랬냐? 투자비 어쩌고 나는 뭐 난 니가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두려운 게 뭔 줄 알아?
니가 너무 열심히 살고 너 그거 아니야 내가 회사 안 다니면은 나중에 아빠가 혹시라도 나 불쌍하게 여겨서 나한테 돈 줄까 봐 너 그거잖아.
뭘 맨날 그거 아니야 넌 그거야 난 니가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서는 너무 좋다는 둥 맨날 이지랄 떨고 있고 너 그거 아니야 아빠가 나 불쌍하게 해서 내가 너무 싫은 게 뭐냐 옛날에 나 그 박사 과정 들어갔을 때 아빠가 와서 난 니가 박사과정 들어가서 학비 좀 내줬으면 좋겠다.
니 오빠한테 얘기하니까 니 오빠가 아무런 얘기도 안 하더라.
아빠도 알고 있는 거야 뭘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 니가 그

참석자 1 47:05
나는 아버지한테는 그런 얘기 전혀 안 들어 안 그런 얘기 정말 처음 들었어.
그거는 완전히

참석자 2 47:10
너라는 새끼는 다 그거야

참석자 1 47:12
너 장학금 받았다

참석자 2 47:13
그때는 근데

참석자 1 47:16
수진아 알잖아 너 옛날에 너 미국 갔을 때 내가 500만 원 대준 거 너 그건

참석자 2 47:21
야 500만 원 야 시바 새끼야 내가 결혼했으면 어 집에서 뭐 안 해줬겠어?
너 그 생각은 안 해? 예전에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지 말고 너 또 장학금 얘기를 하고 있어.
장학금을 입학금을 내고 나서 뭘 다녀야 장학금이 나오는 거지 장학금부터 나와

참석자 1 47:37
야 너 미국 갔을 때 같은 새끼 엄마가 나한테 니 학교 대달라고 해서 내가 넣은 거는 알잖아 너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었거든.
그때 엄마한테

참석자 2 47:47
미친 새끼야 너 그 영통 너 아파트 살 때 너 엄마가 돈 줬잖아.
너 유분 들어가면 너 그것도 다 청구되는 거 알지 뭐를 너 영통 샀을 때 엄마가 돈 줬잖아.
나 그것도 있어.

참석자 1 47:57
어 맞아.

참석자 2 48:00
그래서 뭐 하는 척하고서

참석자 1 48:02
언제 내가

참석자 2 48:03
아니 뭐 아니 지가 안 받은 척하고 있어. 나는 뭐 부모한테 받은 게 없다는둥 내가 그래 너 맨날 나한테 그러잖아.
나는 부모한테 받은 게 없다고 아니야 내가 다 읽었다고

참석자 1 48:14
병원을 내 혼자서 이것도 아버지는 내가 병원 개입할 때 엄마 아빠는 단 한 푼도 대주지 않았어 너 그건 알거라고

참석자 2 48:23
니 계좌를 털어봐야 유류분 소송 들어가서 니 계좌를 한번 털어봐야 아는 거지.

참석자 1 48:27
엄마 아빠는 적어도 내가 개업할 때 우리 병원에 해준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참석자 2 48:33
아니 내가 여기 계좌 다 까봤거든. 엄마가 너한테 여기 입금한 것도 있고 니 아파트 관리비 내준 것도 있고 다 있어 다 써놓은 거 있어 이거 이거 다 유리분 들어가면은 이거 다 특별 수입금 다 들어가 알아 그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참석자 1 48:47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참석자 2 48:51
그래서 아주 네 그 씨발년이랑 아주 근데 너랑 변호사가 너 같은 오빠 있잖아.
그리고 내가 영화 되게 창피하거든 문자 메시지 다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안 좋은 가족 관계라 빨리 잘라내래 잘라내래 정말 그 정도야.
그래서 내가 영아 그 시발년 내가 고소하려고 내가 민사소송 보여주고 막 이 정도 거여진데 이 정도면 빨리 잘라내야 되는 패밀리래 나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소송 안 한 거야. 그리고 너 내가 이거 세무대행하는 아저씨가 너 그 병원 내가 한편 거기 심의위원회도 올리려고 그랬었어

참석자 1 49:39
어떻게

참석자 2 49:40
감평심의위원회 너 그거 지금 나한테 그거 숨기고 있는 거잖아 뭐를 뭘 숨겨?
박상호도 그 새끼 그 시발 새끼도 그거 떨고 있었는데 시가 평 가평하는 거 너 안 걸렸잖아 너 병원 건물 너 안 걸렸잖아 너 공시지가로 신고한 거

참석자 1 49:58
어

참석자 2 49:59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너 그거 그대로 더 신고되는 거야 실거래가 내가 모를 줄 알아

참석자 1 50:09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내가 들었던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참석자 2 50:15
그냥 박상호 새끼가 왜 이렇게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벌벌 떨어 소송 들어가면 그거 금액 드러날까 봐

참석자 1 50:24
무슨 말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거는 나한테 나한테 말했던 거는 첫 번째로 박상호는 나보고 감평을 두 번 받으라 말했고 두 군데 다 전부 다 받아야 된다는 거야.

참석자 2 50:36
너 너 나하고서는 내가 그 사창리 그거랑 같이 해서 너 그때 나한테 그거 왜 받았다고 하면 너 숨기고 내가 다 알아 너 그거 어디 제일 감평보 받고 내가 사창리 방패동에 있는 거 내 다 알아 너 그거 받은 거 내가 우연히 우리 회사 사람의 형이야 세상 좁아 나 다 알아

참석자 1 50:56
그래 받았어 그건 맞아 그리고 내가 내가 너한테

참석자 2 51:00
근데 그 기록을 안 올려가지고 내가 고소하잖아

참석자 1 51:03
영수증을 내가 너한테

참석자 2 51:04
그 사람 처벌받아

참석자 1 51:05
영수증을 내가 너한테 보내줬다고 제일 평가 감평을 받은 거 네가 나한테 물어보길래 내가 제일 간평에 너 영수증을 내가 너한테 보내준 적 있어 여기서 받았다고 그러면서 내가 아는 사이인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걸 숨기지 않아.
적어도 그거는

참석자 2 51:23
아니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거 안 올리려고 니가 올리지 말라고 그랬나 보더라고.
근데 그거 걸려 법인 너 알지? 감평받고서는 그 금액 공개 안 하면 그거 걸려가지고선 방배동에 있는 감평 회사들 징계 먹었었어.
내가 그거 찔렀어

참석자 1 51:42
응

참석자 2 51:43
감평했는데도 거기 금액 안 올라와 있다고 이상하다고.
왜냐하면 거기 경쟁사가 3개가 있거든 그 지네끼리 서로 찌르거든 감평받았는데도 안 올리고서는 거짓말하면

참석자 1 51:54
야 그건 모르겠다.

참석자 2 51:56
이자가 또 뭐 모르겠다

참석자 1 51:58
그거 근정과 때 내가 모르겠어. 그건 알 수 있는 방법 없어.

참석자 2 52:01
너랑 그 씨발년이랑 아주 그냥 빨리빨리 잘라내서 내가 그래서 아주 그냥 유류분도 하기 싫어 아주 너 같은 그냥 지긋지긋한 아주 그냥 애미애비 년 유 한 년은 그냥 똥질을 하고서는 하나는 그냥 아주 그냥 어깨에 붙어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지금도 문 열고서는 맨날 수신수신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
좋은 부모에 대한 기억도 너 같은 새끼 때문에 니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참 볼만하겠다 볼만하겠어 니가 그걸 알아서 뭐 하냐 이 씨발 새끼야

참석자 1 52:43
집에 찾아가려고 그러지 나는

참석자 2 52:45
뭘 찾아와 오면 너 나한테는 칼 맞아 죽어 눈가를 어제 파버리고 싶어 아이고 그러고서는 내가 그냥 돌아가셔서 파리바게트 가고서는 저기하니까 그 영화 그 개시발요 내가 아버지 모셔오러 가러 갈까 봐 그냥 얼굴에 그 공포 아이고 미친년 아버지는 그 돌대가리 년이랑 살고 싶어 하지도 않아 유 참 아빠도 불쌍하지 아유 불쌍하지 구박댕이 유 결국은 딸한테도 가르칠 거 다 가르치고 결국은 증오의 대상이 됐잖아.
왜 너 때문에 너랑 니 애미 니 그 걔 쌍년 때문에 나한테 뭐 민사 소송을 아버지 뭐 카드 쓰기 어쩌고 저쩌고 개씨발년 아주 그냥 한 천만 원이면 아주 그냥 그 개시발 아주 그냥 강간시켜서가 아주 그냥 대치동 사거리에 그냥 아주 대롱대롱 매달아놔가지고 볼거야 그러고서 니 홈페이지에 아주 그냥 니가 나한테 보낸 거 네 펜네가 보낸 거 아니야 싹 다 그냥 공개하고서는 아주 차라리 내가 정보통신망법 내가 위반으로 가는 게 낫지 너라는 인간을 갖다가 아주 그냥 골로 보내고

참석자 1 53:58
근데 수지 너무 무서운 얘기는 하지 말자. 진짜

참석자 2 54:01
무슨 뭐 하나 동탄 난 카페에 맨날 이 간호사 년들이 몰리나 보더라 놀고 자빠졌네 그 실태를 알아야 돼.
너무 실태를

참석자 1 54:09
맞아. 수진아 부탁해

참석자 2 54:11
저 새끼는 아주 그냥 쌩 매장을 해가지고서는 예판연년이랑 실태를 알아야 돼.
아주 그냥 뭐 치과에서 사고 자

참석자 1 54:19
동탄 한방 깨면 어떻게 들어왔어 거기는 잘 못 들어갈 텐데

참석자 2 54:23
야 그거 들어왔어 내가 내가 너 니네 그 마케팅하는 거 내가 그 정도 모를 줄 알아 다 알아 그거 대행하는 에이전시도 알아 내가 누구한테 묻는 수수료 내가지고서 어디 어디 하는지 누가 알바하는지 내가 다 알아.

참석자 1 54:40
근데 맘카페는 우리 안 하는데 아예 진짜로

참석자 2 54:43
난 다 알아 맘카페고 뭐고 왜 겁은 나나 보지 다 하니까 내가 지금 한꺼번에 착 해가서는 팝업 딱 뜨고서는 너의 그 실태를 갖다가 그리고 내가 넌 정보통신만보에 한번 먹으면 돼 난 잃을 게 없어 너는 그거 그거 하겠지 그때 네 편 내년 아이고 볼만하겠어 그 또라이년 나는 그래도 이제는 너무 시원해 돈을 떠나가지고 되진 부모에 대해서 내 감정이 어떤지를 너한테 아주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시원해.
그리고 내가 그냥 사진 했냐 칼로 얼마나 찔러냈던지

참석자 1 55:22
이런 얘기 처음이니까 나는 네가 이렇게 분노하는지 몰랐어.
솔직히 말하면은 한 번도 네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한 적은 없었잖아.
한 번도

참석자 2 55:29
뭘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없어 너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왔을 때 나한테 어 내가 한번 그냥 지랄지랄하니까 너 아주 공포의 본 이게 그거 아니야 너 나중에 이혼 소송 날까 봐 너 그거잖아 받아 처먹은 게 많았으면은 아이구 이 그러면서 뭐 공과금 낸 걸 갖고서는 뭐 어쩌고 어쩌고 뭐 확인을 하라는 등 미친 새끼 야 그거 말고도 많아 치닥거리하면서 좀 미안한 줄 알아 인간이 어 인간이 그래서 지 팬내년이라는 건 뭐 나한테 무슨 엄마 무슨 장루를 갖다 청소를 해본 적 있냐고 미친년 그럼 장루를 갔는데 청소를 안 하냐 그대로

참석자 1 56:19
내가 전혀 영화랑 그만큼 소통을 잘 안 하기 때문에 했던 거였었지 영화가 그런 마음을

참석자 2 56:26
야 소통이고 뭐고 그 예편 그런 거고 니네들은 다 하나같이 같은 화합을 갖다가 이루어 가지고 하나의 부창부수 잘 나가는 패밀리야.

참석자 1 56:37
영화랑은 메시지 보낸 건 내가 전혀 너한테 서로 메시지 보낸 건 내가 전 알 수 없어.
그건 서로 보여주지도 않거나 그거는 내가 걔 건 더군다나 너랑 그런 얘기 때문에 내가 다 모

참석자 2 56:48
알고 싶지도 않고 그 시발년 나한테 아까 물었잖아.
회사를 왜 그만뒀냐고 니 그 개씨발년한테 물어봐 그날이 그날이야 니가 나한테 금 막 협박하고서는 그 사진 보내고서는 국세청 들어왔을 때 각오하라고 그날이 그 개시발년이 나한테 보낸 거야.
회사에다가 투서 넣어가지고 근데 투서를 뭐라고 넣어 엄마 장모안 갈았다고 아니면은 올케년 욕했다고 그거 그러면 내가 뭐 지를 갖다가 허위 모 그거는 걸리지도 않아.
정보통신망법에 그거는 공연적기가 아니야. 근데 미친년 뭐 자기가 뭐 앞으로 인맥을 써서 지의 파멸을 보내고 미친 년 그전엔 사람 시켜서 그전에 사람 시켜서 강간시켜서 대치동 사거리에 빨개 박혀서 덜렁덜렁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알아 볼 만하겠다 참나 그리고 너는 그 동탄구 카페에다가 내가 팝업을 확 띄우고 너 너랑 니 예편네에 대한 분노가 그거야 그것들이 돼지는 엄마 아빠한테 그대로 전이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칼로 찔러대는 거야. 칼도 휘었어 알아.

참석자 2 58:01
아주 그냥 나의 감정을 얘기하니까는 은미 언니가 뭐랬는 줄 알아 그래도 모든 걸 용서하고 감사하고 살래 자기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자기가 뭘 해주는데 은이는 좀 인간이 돈을 떠나서 좀 덜 얌채 같아 봐.
좀 들 얌채 너무 그게 비열하지 않니? 니 눈가루는 너무 소름 끼쳐 그 눈깔은 정말

참석자 2 58:51
그리고 내가 그래도 니가 오빠 새끼라고 니 동창이 너 욕하는데 넌 너무 기분 나빴거든 아니 어떻게 동생인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근데 너의 비열함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미 돼 있는 거야.
포지셔닝이 그런 줄 알아 좀 그 비열함

참석자 2 59:17
아주 그냥 너무 그냥 이런 지긋지긋해 이게 아주 그냥 이 똥지라는 애미연과 아주 그냥 들러붙어서 귀신 같았던 이 애비가 살았던 이 집을 떠나지도 못하고 팔리질 않아가지고 아주 유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 아주 그냥 이런 귀신 나올 만한 이런 집들 니가 이거 맨날 이거 갖다 놨던 이 tv 그냥 이런 것들 아주 그냥 아랫집에 참 미안하지 뭐냐 너라는 너랑 그 니 그거 개시발년 살인당해도 마땅한 그 개쌍년 조심하라고 해.
언제 내가 똘받아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 시켜서 볼만할 거야.
병신 같은 년 그전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겠지.
나는 할 만큼 했어. 니 애미 위한테 아주 그냥 옷에서도 똥 내가 가는 거 같아 그러면서 뭐 엄마한테 돈을 엄마를 돈을 받고 모셔 야 니 같았으면 니 에편 노년이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 나한테 무슨 근거로 그러고서 뭐 애를 버리고선 뭐 갔다고 미친년 아이고 야

참석자 2 1:00:51
야 상식적으로 시어머니 저기 하는데 걔 몇 번 왔냐 그리고 내가 그 계란 그거 왜 안 온 거야 걔 엄마 거기 병원에 있을 때 나는 그거는 좀 묻고 싶어 걔 왜 안 온 거야 엄마가 그 계란 써 온다고 그러더니 난 정말 묻고 싶어 걔 왜 그런 거야

참석자 1 1:01:08
나는 그냥 그건 전혀 모르겠어. 나는 그거는 계란 얘기는 나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 계란

참석자 2 1:01:18
야 나는 너랑 법정에서 만나기 싫고 어 지금 나는 그냥 너랑 그냥 빨리 이거 처리하고 나중에 너희 니 편에 신변이 뭐가 일어나든 뭐든 나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 세금이랑 이거나 니가 맞고서 니가 다 내 어 합의하는 걸로 하고 난 더 이상 너는 쏘면 소름 끼쳐 니 눈깔 그리고 너의 그 사람을 유도하는 것들 아까는 목요일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은 뭐 또 변호사가 또 세웅이 뭐 지랄 났어 지랄 났어 와서 인감이 어쩌고 저쩌고 또 이제 인감 하면 찍고 오면 이게 마지막이니까 이제 그 지랄 떨고 있는 거지 이 씨발 새끼야 내가 너를 몰라 그 눈깔 야 그 눈깔이 내가 언제 제일 설떨렸는 줄 알아 너 기억나냐 나 아프리카 갔을 때 나왔을 때 니 친구 그 식당 개업해가지고는 아빠 데리고 갔을 때 찬중이 새끼 데리고 영준이 아주 그냥 그때 그냥 내가 미국 언제까지 거기 있을까 아주 그냥 눈가를 그러면서 자기 아들 새끼 또 선물은 또 맨날 또 사오게 해요.
또 유 너 같은 것들을 내가

참석자 2 1:02:36
참 꾸역꾸역 참 나 정말 아빠가 제일 싫었던 게 뭔 줄 알아 진짜 내가 싫은 게 뭔 줄 알아 지 몸땡이 편하고 지 저기 하려고 맨날 나한테 강요한 거 나 어디 갔다 오면은 영화랑 산중이랑 뭐 사다 줘야 된다고 너무 싫었어.
밤새도록 나를 들고 가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 나 아빠 여기 넥타이 넥타이도 나 불 질렀잖아.
집에 불났는 줄 알았어. 얼마나 지었으면 왜 이렇게 강요를 해 너희 부모 너희 예판네랑 저기가 뭔데 왜 제삿밥 쳐 먹으려고 아빠 원래 먹는 거 좋아하잖아.
그 제사빠 쳐 먹으려고서는 나를 그 강요를 하는 거야.
니가 잘해야 내가 편하다고 얼마나 그냥 치가 떨리는 줄 알아 내가 왜 너희들한테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뭔데 나한테 남는 게 아주 그냥 자기 제사 뻗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부모가 증언스러운 거야.
지금은 아주 내가 어떤 줄 알아 나 아주 그냥 거기 산소가 가서는 그 뼛가루 그거라도 어떻게 좀 해보고 싶어

참석자 2 1:03:47
아주 구천을 갔는지나 모르겠어. 아유 그런 애비 새끼를 또 내가 또 죽고 나서는 또 절에 가서 내 돈을 들여가지서 또 공을 들이고 했으니 아유 애비 새끼라고 좀 미안하고 참 넌 진짜 웃기더라.
죽고 나서는 또 흐느끼더라. 어깨를 들썩들썩 왜 못 모시고 살아서 아니면 수진이가 수진이한테 학대받은 것 같아서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아주 그냥 홀가분했어.
알아. 그러고선 영아녀 그 씨발년 야 나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연속으로 그때 한 코로나 해지되서 세 번을 갔었어.
나보고 영환이 언니 뭐랬는 줄 알아 내가 방치하고 전혀 아빠를 가지도 않은 줄 알더라.
아가씨가 세 번이나 갔냐고 몇 번을 물어보더라. 미친 년 난 자주 갔어.
뭐 지 같은 년인 줄 알아 야 거기 간병인이 뭐래는 줄 알아?
그게 며느리냐고 그러더라. 와서는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뭐 며느리 참 불쌍해 귀도 안 들리고 맨날 눈치는 보고 사람 피곤하게 하고

참석자 2 1:04:56
아들한테 가서는 또 어떻게 되고 혹시 딸은 어떻게 결혼하면 나는 어쩌나 아주 앵겨붓고서는 야 너 지금 내가 너에 대한 감정 알았지?
너희 부부 들었지 들었어 나 시원해 이거 난 언젠가 한번 알아야 돼.
은미이는 알아 내가 어떤 분노를 품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도 이해해.

참석자 1 1:05:20
수진아 수진아 왜 너 너 너 너 오늘 아침에 나 볼 때 어 너 아침에 나 오늘 볼 때 어 여보세요

참석자 2 1:05:36
어 말해

참석자 1 1:05:37
아침에 나 볼 때 얼굴 볼 때 어 너 많이 당황했었니? 어땠었니?

참석자 2 1:05:42
뭘 당황해

참석자 1 1:05:45
인사할 때는 그냥 내가 인사할 때는 그냥 괜찮았었어.
그때는

참석자 2 1:05:49
뭐가 어땠냐고

참석자 1 1:05:51
그냥 분위기나 그런 게 어색하지는 않았어. 이상하지 않았었어

참석자 2 1:05:55
니 눈깔이 그렇지 뭐 그때부터 이제 니 눈깔이 본색이 드러나지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니 눈깔 살살 보는 거 있잖아. 맞방에다가 니 손 이렇게 얼굴 하면서 이렇게 눈 가리면서 슬쩍 보는 거 그거 있잖아.
너 그 매너리즘 이걸 어떻게 풀어가면 될까? 그래서 본색이 드러나잖아.
너 아까는 또 이제 목요일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변호사가 어쩌고저쩌고 이지랄 떨고 시수료가 어쩌고 저쩌고 다 아는 얘기야 니가 이거를 수수료를 몰랐다고 너 나한테 옛날에 박상우가 대행했을 때도 그 얘기했었어.
니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이런 거는 수수료 안 주면 안 해준다고 하면서 당황스럽다는 등 너 나한테 문자를 보냈잖아.
이런 게 당황스럽다고 뭐가 당황스러워 너라는 인간 새끼가 비열하고 그런 게 너무너무 저기해.
너 옛날에 그랬어? 박사 대행에도 수수료 안 주면은 이런 거 안 해준다고 너는 니 친구는 누명을 쓰고 이거 그 얘기 다 했잖아.
근데 뭔가 당황스러운 거. 너라는 인간 자체가

참석자 2 1:07:03
항상 그런 시나리오 기반으로 해.

참석자 1 1:07:07
수수료는 정말 몰랐었어.

참석자 2 1:07:10
너 자체가 그 비열해서 니 친구들한테도 다 그렇게 비열하게 보이는 거야.
너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던 거는 옛날에 그 이구순 아줌마인 건 하더라.
자기가 교통비가 걱정되니까는 그래도 원장 선생님은 교통비를 주더라.
흔쾌히. 그래서 그거 보고서는 그래도 참 괜찮은 면이 있구나라고 하는데 넌 역시 비열해.
난 참 창피해. 니 동창들한테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용빈이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용빈이 너 너무 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석자 1 1:07:41
어디 그 얘기를 어디서 했다는 소리야 장례식장 와가지고

참석자 2 1:07:46
니 동생 누구를 만났는데 뭐 딴 얘기를 하다가 누구라고 내가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어떻게 동생이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나

참석자 1 1:07:55
난 그 얘기는 정말 이해도 안 가는데 진짜로 농담 아니라

참석자 2 1:07:59
그 동창들도 다 알았나 보지. 야 랑 나랑은 야야야야야 조용하고 나는 니 눈깔은 파가지고 알사탕이나 했으면 좋겠고 영아년는 누구 시켜서 청부 살인을 하든가 강간을 해서 시켰으면 좋겠어.
그래서 산산 조각을 내고 싶은데 나도 바쁘고 이러니까 유언 소송 없이 그냥 하는 걸로 해.
왜냐면 너랑 저기는 그냥 떨어뜨려야 돼. 살 떨려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고 싶지도 않아.
이거 돈이 아니야. 너는 돈이겠지만 난 돈이 아니야.
너랑 너희들에 대한 그 증오는 부모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기억을 갖게 만든 게 너희들의 가장 큰 과업이고 왜 내가 이런 기억을 갖게 됐는지 모르겠어.

참석자 1 1:08:55
나중에는 나 볼 생각 있어 그러면은

참석자 2 1:08:57
너를 왜 봐? 그래서 아까도 나는 당황스럽다. 나중에는 뭐 우리끼리 뭐 보고 너 너 그랬잖아 너 나중에 우리끼리 볼 일이 뭐가 있냐고 니가 그랬잖아.
너 아빠 나한테 계속 문자질하면서 너랑 나랑 볼 일이 뭐가 있냐고 니가 먼저 그랬어.
알아 기억 안 나 내가 어 1월에 너랑 나랑 볼 일이 앞으로 뭐가 있냐고 니가 먼저 그랬어.
근데 너 아까는 웃기더라. 너 앞으로는 우리가 봐야 된다고 내가 너를 왜 봐

참석자 1 1:09:23
오늘 오늘 말하는 거야.

참석자 2 1:09:25
니가 아침에 그랬잖아. 앞으로는 우리도 계속 부인 누가 집안에 누가 저기하면은 봐야 되고 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웃겨

참석자 1 1:09:35
앞으로 볼 일이 계속 있다고 말했던 거였잖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석호 형이 죽었어

참석자 2 1:09:40
뭔 줄 알아? 그러니까 작년 1월에 앞으로 너랑 나랑 볼 일이 뭐가 있냐라고 니가 문자로 보냈었어.

참석자 1 1:09:45
근데 그건 모르겠다. 2차로인데

참석자 2 1:09:48
뭘 봐? 니가 보냈었어. 앞으로 너랑 나랑 볼 일이 뭐가 있냐라고 변호사만 저기 하면 되는 거지 니가 보냈어.
근데 그런 얘기를 왜 물어보는 거야? 그게 왜 궁금해?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왜 궁금해? 왜 복수할까 봐

참석자 1 1:10:05
아니 아니 니가 지금 이 정도인지 솔직히 잘 몰랐어.
진짜로 니가 지금 이 정도로 분노가 심한지는 솔직히 잘 몰랐어.

참석자 2 1:10:12
돈이 아니야 너 그거 알아야 돼. 너 폰이 아니야

참석자 1 1:10:18
진짜 미안해. 진짜 좀 정말 이 정도는 진짜

참석자 2 1:10:20
새끼 데리고 가고 서는 어 시어머니 그 똥질하고 있는데 와가지 서는 빈손으로 와서는 무슨 자기 애 새끼가 그 놀이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는데 국물을 새고 그러고서 내가 애를 버렸다고 그 개정령 그런 각자 다른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오스러운 거야.
알아 내가 지금 여기 칼이 있는데 새어 너랑 그 애미애비년 사진들 다 다 찢어발기느라고 내 어떨 때는 진짜 불안해 집에 불 날까 봐.
근데 다 태웠어. 이미 그 애비 새끼도 그냥 내가 그냥 팍팍 그냥 오리타 그랬더니만은 여기 집 안에 그냥 털이 다 날려가지고는 내가 그 청소하는 라고 참 야 그거 볼 만했다.
그것도 그리고 엄마가 제일 여기 아끼던 장도 유리창도 하나가 다 나갔어.
이거 그냥 뭐 팔려고 그래도 내가 아주 그냥 이 애비 새끼 그냥 맨날 그 양 넣놨던 그 통 아유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도 가져가지도 않아.
그 애미년 맨날 저 누워 있던 그 똥질나는 저 침대 저거 저것도 그냥 다 내놨는데도 가져가지도 않아.
아직은

참석자 2 1:11:34
그러면서 영화 시작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처럼 부모를 돈으로 모시지 않는다고 니가 시킨 거 아니야 니가 영화한테 내가 돈 받고 못 쓰는 거라고 니가 시켰었어.
그날이 니가 나한테 금이랑 그거 현금 이거 사진 너 그거 저기 제출했더라.
세무사가 나한테 보여줬어. 비열한 새끼 너는 그런 새끼야 비열한 새끼 그 눈깔 그러면서 아침에 아까 나를 봤을 때 어땠냐고 미친 새끼 지금 물어보는 것도 그런 의도 아니야.
니가 세무사한테 제출한 걸 그걸 내가 아는데 다 맨날 그 유도해 가지고 그래서 너 같은 새끼는 떨어내야 돼.
돌려내야 돼. 니 예편네 같은 년도 강간을 시켜서 아주 그냥 사거리에다가 걸어놓든 청구 살인시켜놓든 아주 다 떨어내버려야 돼.
아주 내가 파멸을 하더라도 애미 애비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안 좋은 기억을 갖게 된 게 아주 그냥 최악이야.
지긋지긋한 것들

참석자 2 1:12:39
한 년은 똥질을 하다가 그냥 아주 그냥 나를 그냥 괴롭게 만들고 개고 한 새끼는 아줌마 들러붙어가지고서 회사 쪽팔리게 만들고 유 너는 불쌍하긴 하냐 근데 왜 울었냐 너는 아빠 돌아가셨을 때 흐느끼고 참 그것도 골때리더라.
불쌍하지 귀도 안 들리는데 맨날 여기 와서는 어슬렁 어슬렁대 가서는 맨날 어디 뭐 그래?
불쌍하긴 해. 홈플러스에서 맨날 그 도너트 먹고 있던 거.
근데 그 불쌍한 게 이제는 지긋지긋해 안 보니까 살 것 같아.
오죽하면 내가 여기 넥타 있던 것도 그냥 다 잘라가서 그냥 불 질렀겠냐 방어원 될까 봐 나도 무섭다야.
빨리 이 집을 떠나랬는데 나가지도 않고 나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했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부모랑 너랑 니 예편느한테 어떤 감정인지는 니가 알았기 때문에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참석자 2 1:13:45
이 기회를 통해서 안 그러면은 나 혼자서 여기서 맨날 칼로 찍어놨을 거 아니야 그 가족 사진들

참석자 1 1:13:55
이 정도인지 몰랐어.

참석자 2 1:13:56
이 정도야 이 정도고 아주 그냥 이건 돈이 아니야. 니 여편네랑 너랑 그동안 해왔던 그런 거에 대한 결과야.
결과 얼마나 증오스러운지. 그리고 니 애비 새끼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나를 갖다가 들들들들 볶았는지 왜 제삿밥 쳐 먹으려고 너 제사를 지내냐?
아유 그냥 얼마나 그 제삿밥을 처먹으려고 편하기도 하겠어.
편하기도 하겠어. 야 내가 한 번은 내가 맨날 칼로 찔러대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꿈에 나타났는데 엄마가 너무 미안하대.
나한테 그러면서 엄마가 병원 간평받으라고 그러더라.
나는 그 병원 박상호가 나한테 거짓말해가지고 그거 공시지가 그 신고한 거.
그 금액 나한테 거짓말했거든.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이거 감정평가 받으라고 그랬어.
엄마가 오죽하면 거기에 아빠도 나타나더라. 애비라는 새끼는 옆에서 멀멀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엄마가 그때 게시를 보낸 거지. 그러니까 엄마는

참석자 2 1:15:07
도와주려고 했어. 그 타이밍을 내가 그냥 보낸 거지.
오죽하면 엄마가 나한테 미안하대. 난 정말 사람이 생각하는 게 의식하는 게 꿈에 나타난다는 걸 나는 그때 정말 느꼈어.
엄마가 맨날 나 나타나면 나한테 미안하대 아빠는 아빠라도 나타나 멀거니 이러고 있어 그 동태 같은 눈깔로 사태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러고 있어 멀거니 야 난 정말 놀라웠어.
어떻게 이게 사람이 정말 생각하는 게 꿈에 나타나는구나.

참석자 2 1:15:45
결론만 얘기하면 나는 너랑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 소송할 저기도 없고 그냥 빨리 이거나 니가 저기 세무사한테 얘기하고서 잘 마무리해 알았어.

참석자 1 1:16:05
아무튼 다시 얘기해보자. 오늘 내가 충분히 알았으니까

참석자 2 1:16:09
일단은 내 감정을 좀 알고 그럼 알아야 되지 않겠어.
죽을 때까지 이 에카네년일 저기 나한테 보냈던 거 이거 보내줄까 이거 어차피

참석자 1 1:16:24
나중에 보자. 나중에 어차피

참석자 2 1:16:25
빵 정보통신 몸빵 이거 기한 5년이야.

참석자 1 1:16:29
나중에 기회 있으니까 일단 그냥 좀

참석자 2 1:16:33
아니 그냥 거기다 고소하느니 그냥 청부시키는 게 더 나아.

참석자 1 1:16:37
정리한 다음에 정리 다 된 다음에 보자. 한번

참석자 2 1:16:41
뭘 보아 정리된 다음에 뭘

참석자 1 1:16:43
정리된 다음에 나한테 보내달라고. 그거를 정리된 다음에 어느 정도 나도 지금은 니 감정 네 감정 일단 알았으니까

참석자 2 1:16:51
더 이상 감정 얘기하기도 싫고 내가 다 보여줬거든 변호사한테 니 예페내년이랑

참석자 1 1:16:58
응

참석자 2 1:17:01
이런 거는 그냥 빨리 잘라내야 돼 보기도 싫어. 그리고 니가 나한테 제일 미안해야 되는 거는 그거야 불쌍하게 맨날 똥질하다 죽은 어미 그리고 귀도 안 들려가지고서는 맨날 덜덜 떨면서 맨날 밥이나 먹고 하는 불쌍한 애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인데도 증오하게 만든 거 왜 너라는 새끼한테 제삿밥 쳐 먹으려고 나한테 강요해가지고서 맨날 오빠랑 사이 좋아야 된다고 그렇겠지 사이 좋아 사이가 안 좋아지면 니가 이렇게 소송 걸 걸 알았겠지 니가 다 녹음해 가지고서는 세무사한테 캡처 받아가지고 내가 현금 가져가고 뭐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다 하고 너란 새끼는 그런 비열한 새끼야.
그렇기 때문에 너의 그 수법을 다 알아. 세무사도 알아 너라는 새끼가 얼마나 비어왔는지 언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빨리 떨어내라는 거야. 유 야 오죽하면 참 창피해.
너라는 게 니 친구들한테도 이미지가 그거야. 그런 줄 알고 살아.

참석자 2 1:18:13
너란 새끼가 얼마나 그 비열한지 니 친구들한테 너는 뭐 동창들이랑 되게 호호하지 니 동창들은 너한테 그렇게 생각 안 해 하지만 근데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나는 어차피 니 부인 뭐 이런 것들은 유류분 소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복수할 저기가 있으니까 유류분 소송은 그냥 안 하고 니가 세무는 어떻게 좀 잘 해서 막을 생각이나 해.
나 괜히 뭐 세웅 변호사가 뭐 미친년이 오든 말든 당장 급한 것처럼 주접 떨지 말고 나도 합의할 건 합의할 테니까 나는 그래도 너무 잘 된 것 같아.
너희 부모 똥질하다가 돼지 니 애미랑 내 어깨에 아주 그냥 들러붙어서 있었던 덜덜 떨던 니 애비 제삿밥 쳐 먹으려고서는 나한테 그냥 맨날 오빠랑 뭐 뭐 잘해야 된다라고 강요했던 니 애비 새끼 아주 그냥 옥재 같아 그냥 옥재 같은 거에 대해서 내 감정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알았지? 응 알았어.

참석자 2 1:19:22
난 아주 그거 좋아. 너는 아주 또 그거지. 아유 이게 또 이제 나중에 또 이거 합의 안 해주면 뭐 합의할 거야 합의할 거고 떨어내고 나중에 니 부인 여편네랑 신변에 뭐가 생길지는 나는 그건 장담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건 뒷일이고 그만큼 나는 그냥 빨리 떨어내고 싶어.
니가 얼마나 비열한 거는 세무사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합의하라는 거야.
니가 뭐 제출한 거 다 알아? 내가 괜히 여기 데리고 있는 이 아저씨를 괜히 데리고 들어간 줄 알아 다 파악했어.
니가 뭐 제출했는지 난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짝꿍이야.
그 아저씨가 너라는 비결한 새끼 그래서 그 아저씨도 동탄에 있어.
너라는 새끼 다 알아 니가 쓰는 세무사도 다 알아

참석자 2 1:20:20
내가 무슨 뭐 저기 해가지고 사는 건지 알지? 그러니까는 너라는 새끼가 제출했고 비열하고 더럽게 가기 때문에 세무사도 빨리 그냥 오빠랑 잘 합의하라는 거야.
가 봐야 불리하고 니 너라는 새끼가 얼마나 비열하게 지랄하는지 아니까.
그러고 뭐 한 줄 알아? 창피하게 역대급으로 본 것 중에 제일 사이 안 좋았던 사람 상위 1%래.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얼마나 내가 그 수사반장이라는 사람이 웃고 있어.
내가 진짜 창피했다. 내가 왜 여기에서 저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나 그 사람 그 팀이 1팀이거든.
그 2팀에 있는 사람이 나랑 같이 간 아저씨 친구야.
그 아저씨도 1팀이랑 2팀이랑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도 어서 정보를 들었는지 웃고 있어.
왜 너라는 새끼가 거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제출한 그것 때문에 웃음거리가 된 거야.
역대급으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패밀리 상위 1%래 그런 새끼가 뭐 아침에 만나서 눈깔이 뭐 어쩌고 날 봤을 때 어떠냐고 야 사람들이 세무서에서도

참석자 2 1:21:30
다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거야. 너의 그 비열함은

참석자 2 1:21:36
이렇게 동생 저기에 대해서 저기할 정도면은 양보하셔야겠네.
이 얘기까지 했어 알아. 너라는 이 비열한 새끼 얼마나 잘 사는지는 참 모르겠지만 그 돈 떠나서 너는 니 애미랑 애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안 좋고 증오하고 칼로 내가 쑤셔댈 정도로 너 그거 알아 엄마가 아끼던 그 그릇들 내가 다 여기 망치로 다 깨부셨잖아.
당근에 팔 가치도 없어. 이 애민이라는 이 이거 한 거 다 지긋지긋해.
아저씨한테 돈 주고서는 그거 다 갖다 버렸잖아. 그게 다 너 때문이야.
니 에에는 년이랑 안 좋은 기억을 아주 그냥 만들어준 거 그냥 잘라버리고 싶어 하죠.
돌려내는 것들 그 아들 새끼는 좀 착해. 아주 다르게 그 눈 너의 그 눈깔이 걔한테는 없어.
그래도 순수해. 알았지 내가 너에 대한 감정 세무사에서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그 조사 일반장이랑 그 이 팀장이랑 날 보면서 깔깔대는 거 야 내가 거기서 웃음거리까지 돼야 되냐?
어 너 때문에

참석자 2 1:22:58
사이 안 좋은 가족 상위 1%라는 얘기까지 내가 들어야 되냐 이 애미 애비 년이 나한테 그냥 들러붙어 있어서 살았는데 야 세무사가 뭐랬는 줄 알아?
내 쪽 세무사가 자기 이해할 수가 없대. 어떻게 너희 아버지는 너랑 같이 살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걸 할 수가 있고 나도 나도 참 희한해.
아니 그랬으면 그 돈을 왜 나중에 왜 안 줘? 다 네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참석자 2 1:23:34
다 만들어 놓은 장치 아니야

참석자 2 1:23:44
정상적인 게 변호사가 그러던데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가족이라고 왜 그런 식으로 유언을 남기고 왜 그런 식의 증여를 하는지 난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너무 창피해.
너 알아 너 변호사들 나도 한 세 명 나도 한 세네 명 갔는데 되게 창피해.
너 알아 정말 내가 너무너무 창피해. 아니 아버지는 어떻게 그러면서 딸이랑 근데 왜 사셨어요?
뭔가 이상하대 그게 뭐냐면 되게 창피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세무사에서도 웃음거리가 되고 1팀장 2팀장 너 그게 그 사람들이 보는 비율이야 그거나 좀 알아.
세금 맞고 이거는 두 번째고 너무 창피해. 그러니까 나 이거 대행하는 아저씨도 한숨밖에 안 쉬어.
그리고 우리 집에 대해서 물어보더래. 도대체 이 집은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근데 왜 아버지는 딸이랑 살았냐고

참석자 2 1:25:00
난 너무 이상해. 너 너무 창피해 이 집안의 구조가

참석자 2 1:25:09
그리고 내가 이번에 의뢰했던 그 변호사도 너무 이상하대.
돈을 그러면 나중에 주지 도대체 왜 그랬는지? 자기는 이런 식의 이런 방식은 처음 봤대.
자기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봤지만 이런 유형은 처음 봤대.
그럼 그걸 생활비로 주든지 그건 또 아들은 또 그걸 갖다가 왜 유류분에 넣어서 이렇게 소송을 하는지 그리고 모셨다면서 게다가 모셨다면서요 너무 이상하대.
난 돈이 아니라 너무 이상해. 이상하지 않니?

참석자 2 1:25:52
그래서 변호사가 뭐랬냐면 그래서 유언을 남길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건데 이거는 오빠가 다 짜놓은 각본이고 그렇지 짜놓은 각본이잖아.
니가 아니 그걸 왜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나중에 그냥 합산해가지고선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다 니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너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어. 그러니까 너에 대한 이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창피해.
그리고 되게 유명한 상속 전문 네가 옛날에 지랄했잖아.
나한테 그거 보면서 변호사 빨리 가져가라고. 나 되게 유명한 변호사가 뭔가 이상하대.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유언을 하고서는 오빠는 협박을 하고 자기 왜 아버지가 의사까지 했다는 사람이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 뭔가 다른 요원이 있지 않아.
자기는 되게 유원들 많이 보고 이랬지만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만들어지는 이런 거 최악은 처음 봤대.

참석자 2 1:27:03
너무 창피해. 근데 아버지가 딸이랑 또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아빠는 그럼 아빠에 대한 감정이 좋겠니?

참석자 2 1:27:15
너는 세무사에서 무슨 거리야? 우리 다 역대급 상위 1%래 그게 장 팀장이 얘기한 거야.
장 반장 얘기하고 1팀장 2팀장 다 알아 이 세무대행하는 아저씨한테도 저 집안 너무 웃긴다고 오빠는 의사라면서요.
동탄에서. 근데 오빠가 이 동생 이거 하면서 참 갖고 왔다고 너무 코미디래.
그래서 이 아씨가 한숨 쉬어. 어떻게 의사고 오빠는 돈의 문제가 아니야 너의 그 비열함이야 비열함 너 그 비열함이 사람들의 웃음거리야 알아 또 그러면서 뭐 대웅에서는 뭐 돈을 그치 수입료니까 낮췄을 거 아니야?
나는 받아오는 걸로 청구하는 거고 너는 낮추는 걸로 청구하는 거고 정말 이게 상담 가고 이렇게 의뢰하고 이때 볼 때면 그런 거 볼 때 너무 이상한 집안이래.
이런 속으로 어떻게 왜 유언을 남기고 왜 이런 식으로 돈을 주고 이거는 생활비로 충분히 서기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모시고 살았으면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요?

참석자 2 1:28:35
이제 알았냐 아무런 생각이 없겠지. 내가 그냥 유류분 소송 안 하고 빨리 저기했으면 좋겠어.
근데 난 돈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너무 창피해. 이런 집안에 이런 거를 갖다 다 보고서는 내가 니 변호사는 이제 뭐 소송 안 하고 좋겠지만 남들이 보면 교대나 선능에 되게 유명하던 이런 변호사를 다 다 갔거든.
너무 창피해. 박정식이란 변호사가 나보고 너무 불쌍하대.
덫에 빠진 것 같다고 도대체 아빠는 왜 그러셨을까?

참석자 2 1:29:19
안 좋은 유언들 참 많이 봤지만 참 너무너무 치명타를 남기겠다고 그러더라.
그러고 딸이랑 살았어요. 세상에 그럼 유언을 당연히 바꿔 쓰는 게 정상인데 어떤 집은 바꿔 쓴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아빠 안 바꿨었잖아.
바꿔 쓰고 바꿔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너라는 새끼 때문에 그런 거야.
너라는 새끼 야 너무 시원하다. 야 우리 둘의 얘기를 떠나서 웃음거리야.
어 너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웃음거리야. 역대급이래 역대급 동생 그거 다 들고 오고 사진 찍어놓은 거며 장 팀장이 코미디니까 너랑 빨리 화해하라는 게 그거야.
너라는 비리얼한 새끼 알았지? 알았어 니가 대행을 뭐 하건 뭐 저기하건 유 너라는 그 참 그 아저씨가 그러더라.
참 이상하대. 아니 오빠는 치과 의사고 그런데 뭘 그런 것까지 주고 제출을 하고서는 뭘 그거 뭐 몇 억을 더 가져가고 그거 왜 그랬을까?

참석자 2 1:30:42
너 씨발 새끼야 내가 그거 엄마가 꿈에 나타났어. 너 그거 저기 공시지가 그거 저기 간평하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미친 새끼 내가 저기 할까 봐 나중에는 무슨 뭐 제일 감정평가 너가 숨겼잖아.
세상이 없지 그것도 숨겨가지고 또 등록 안 해가지고서는 너라는 그 비열한 새끼 또 치열하게 하고서는 또 예편 있는 년은 뭐 돈 받고 나를 모셨다는데 씨발년 그 애미야는 그래도 어제 또 돼졌어.
천년 만년 야 니 야 내가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야 니 그 처갓집에 그 새끼들 있잖아.
장례식 때 아빠 와가지고서는 나를 아주 그냥 그 애미년 위아래로 훑어보더라.
왜 이제는 사돈 사돈 돼줬으니까 이제는 저년은 이제는 만만한 거야.
니 그 장모년 그러더니 되졌어. 아주 그때 와가서 나를 그냥 아주 그냥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 니 장인 새끼도 왜 그런 건 없나 보지 자기 딸년 대신해가지서는 같이 산 거는 니 장인 장모가 나를 아주 그냥 위아래로 훑어보더라.

참석자 2 1:32:02
니가 어떤 저기를 하기 때문에 니 장인 장모가 나를 그렇게 쳐다보냐?
어 내가 니 장인 장모한테 그렇게 저기할 사람이야.

참석자 2 1:32:15
기도 안 차더라.

참석자 2 1:32:22
니가 무슨 얘기를 했길래 니 장인 장모가 나를 그 땅으로 내가 니 장인 장모 그 뭐 대단한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그런 시선을 받을 사람이야.
지 딸년 대신 해가지고는 결국 나한테 인계 붙어 있었던 거 아니야 그 돈이 돼줬어 엄마가 데려갔나 보네.
니 장인 새끼도 나를 갖다가 위아래로 휘분덕거리드만

참석자 2 1:32:52
왜 이제는 사돈 새끼 죽으면 사돈 새끼 돼지니까 이제 전녀는 이젠 방패가 없는 거지 그게 나한테 하 저게 예의야.
지 딸년 대신에 똥칠하는 그 애미년하고 귀환 들려서 맨날 덜덜 떠는 그 애 사돈 영감탱이 데리고 사는 사람한테 그게 할 짓이야.
예의를 차려서라도 인사를 해야지 위아래로 쳐다보고서는 이제 만만한 거지.
그게 니 장인이랑 장인 새끼야 니가 평소에 어떻게 날 했으면은 그 땅으로 나를 다 쳐다보고 지랄하는 거야 그게 다 너야 너 미안한 일말에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알아 아주 놀랬어. 니가 어떤 식으로 했으면은 장인 장모라는 그 개새끼랑 이것들이 사돈 돼지였는데 와가서 나를 그 땅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젠 뒈졌으니까 방패도 없으니까 이제 막 저기하는 거지.
그러니 뒈졌어. 지도 유 볼만하겠구만. 야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소송은 안 하는 걸로 하고서는 니가 잘해 나한테 보내봐.
그러고서는 나한테 무슨 변호사 당장 나는

참석자 2 1:34:15
뭐 써야 된다고 이지랄 떨지 말고 난 너랑 소송할 생각은 없고 빨리 그냥 그거나 마무리해.
그리고 그거 나 그거나 알아 웃음거리야 웃음거리 세무서에서도 왜 합의를 하라고 했겠어?
너라는 그 비열한 새끼 때문에 그런 거야. 아유 좀 창피한 줄 알아 이 대행하는 아저씨도 물어보잖아.
창피하다고 오빠라는 새끼가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대.
자기도 그 세무서장이 오빠라는 의사라는 이런 사람이 동생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
창피해. 역대급 1위라잖아. 장민재가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나는 너랑 소송할 생각도 없어. 빨리 그냥 이거나 마무리 짓고 그냥 그냥 떨어내고 싶어.
더 이상 그냥 창피해. 아주 그런 줄이나 알아.

clovanote.naver.com